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10일)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사부대중 원력 뜨거웠다
전법 기금 151억원 모연

상월결사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오른쪽)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에게 전법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코엑스 메가박스 대중 5백명 운집
종정예하, 총무원장스님 금일봉
자승스님, 20억원 전법기금 '쾌척'
이웃종단 지도자, 기금 기부 동참
151억여 원 대학생 전법기금 모연

늦가을 이르게 찾아온 영하의 날씨였지만,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원력은 뜨거웠다. 종정예하부터 일반 신도까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원력으로 전법기금 기부에 동참했고 총 151억3990만원의 전법기금이 모연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법대회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 부의장 도후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前총무원장 원행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유정현 대불련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참석해 대학생 전법 불사에 뜻을 모았다.

위기의 돌파구는 대학생 전법

상월선원 천막결사 4주년을 맞아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향후 10년이 한국불교의 명운을 결정함을 분명히 하며, 대학생 전법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상월결사는 지난 4년여 동안 수행과 순례의 공덕을 이웃과 사회,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정진해왔다. 불교중흥을 향한 신심과 원력은 곧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고 술회하며 "부처님 법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함께 나누고 전하지 못했던 안일함이 젊은 불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경책이었다"고 밝혔다.

"수행의 공덕과 전법의 원력을 한데 모아 다시 찾아오지 않는 오늘을 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자승 스님은 "부처님의 법이 우리를 인연 맺게 해줬다. 생동하는 사고, 대중의 전법 향기는 바로 지금부터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수많은 부처님의 6번째 제자였던 '청년 야사'를 '청년 붓다'로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대학생 전법기금이라는 자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부처님 법을 조금 먼저 만난 우리 승가와 선배 불교인들이 미래의 불자들과 불교중흥을 위해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을 비롯한 모든 불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해 오늘의 자양분이 미래의 화수분이 되어 대학생 전법의 동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역사적인 전법의 길에 제37대 종단 집행부는 늘 함께 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부대중 '통 큰 기부' 이어져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한국불교 명운이 달린 대학생 전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의 기부가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상월결사에 금일봉을 하사했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0억 원을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쾌척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5000만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3000만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3000만원을 전법기금으로 기부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조계종 원로의원, 중앙종회,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종단 직영사찰, 동국대 및 산하학교, 재가불자 등이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대학생 전법기금 조성에 동참했다. 사부대중의 뜨거운 원력은 역대급 규모의 기금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연된 대학생 전법기금은 151억3990만원에 이른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와 대학생 불자를 대표해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새로운 길을 함께 걷고 함께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그 결실을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과 나눠야 한다"면서 "11월 11일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시작한 날이다. 11월 11일을 '한국불교 전법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사부대중의 원력과 응원을 양분 삼아 더더욱 부처님 법이 캠퍼스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희 대불련과 대학생 법우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오는 11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는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시사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장관도 종정예하 앞에선 '남순동자'

1951년생인 유인촌 문체부장관도 조계종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앞에선 구법여행하는 '남순동자'다. 1939년생으로 팔순을 훌쩍 넘긴 성파 대종사와 12살 어린 띠동갑 유 장관이 11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만났다. 법복 차림으로 예를 갖춰 찾아온 유 장관에게 성파 대종사는 직접 옻으로 염색해 만든 스카프를 손수 목에 걸어주며 덕담을 건넸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문체부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중임 추천

원로회의 제73차 회의…대종사 · 명사 특별전형 통과

조계종단 최고의 계사로 꼽히는 전계대화상에 태허 무관 대종사〈사진〉가 중임 추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3차 회의를 열고, 12월 14일 임기만료 예정인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무관 스님은 1959년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 행자교육원 유나,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조계종 의제실무위원장과 계단위원, 법계위원장 소임도 맡았다. 이에 지난 2020년 전계대화상으로 위촉돼 단일계단 수계산림 등을 관장해왔다. 임기는 3년이다.

원로회의는 중앙종회 동의를 거친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성 스님(직할), 법전 스님(마곡사), 지근 · 성문 스님(동화사), 정일 스님(해인사), 도실 · 상운 스님(범어사), 법운 · 원천 스님(통도사), 도원 스님(금산사), 동명 · 철산 · 재석 스님(선운사) 등 13명은 대종사 법계를, 법공 · 요명 · 법영 · 성욱 · 지연 스님(직할), 현각 스님(동화사), 도명 스님(해인사) 등 7명은 명사 법계를 받는다. 원로회의는 또 신임 사무처장으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임명을 동의했다.

이날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종단 최우선 과제는 전법도생과 포교다. 포교는 우리 불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자 승려로서 해야 할 최고의 수행 가치기도 하다"며 "종단 최고의결기구로서 우리가 바로 해야 종단 기강이 살고 정법이 유지된다. 원로들께서도 포교에 마음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집행부는 한국불교 본래 가치인 모든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천년을세우다'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들이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의 지혜와 덕화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고,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앙망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 각 종각문중제실 박 물 관
안 내 소 전 시 장 산 신 각 한옥인테리어 공용화장실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 편리한 유지보수 | 화재에 강함 | 간단한 조립구조

한국스틸 고건축 문의 010-5023-5050

광용 스님 "미래로 가는 비구니회" 염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이·취임
비구니 위상·권익 향상에 방점

참여·도약·미래 기치로 세워
12대 집행부 업적 계승 발전
"6000여 비구니 대변자 역할"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축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3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한 광용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3대 회장 광용 스님이 취임했다.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 미래'라는 가치 아래 비구니 승가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큰법당에서 '본각 스님·광용 스님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광용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여와 도약, 미래'를 목표로 비구니 승가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지난 4년간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 스님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비구니 승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6000여 비구니스님들의 대변자로서 임기 동안 회관에 머물며 비구니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 이후 광용 스님은 본각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본각 스님은 이임사에서 12대 소임자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다운 수행자로 남기를 다짐하며 안심하고 떠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 일법 스님, 혜운 스님, 적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운·철우·혜도·정관·진상·법해·지인 스님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청래 국회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광용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비구니 승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광용 스님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 승가의 본래 면목을 전 종도들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깊다"면서 "비구니스님들의 청정한 수행과 정진력, 광용 스님이 이끌어갈 전국비구니회의 화합된 모습이 종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비구니 원로의장 수현 스님의 격려사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호영 정각회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비구니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후원금도 이어졌다. 세계비구니협의회 부회장 화정 스님과 충북지회장 혜운 스님, 쿠무다문화재단 주석 스님, 13대 부회장 등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비구니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기도 했다. 취임식 축하 화환 대신 나눔의 쌀을 보시 받은 광용 스님은 쌀 10㎏, 100포대와 1000만원을 서울 강남구청에 전달하고 이웃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염원했다.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13대 소임자들은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해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될 것을 선서한다"면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고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아 가며 부처님 가르침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바른 길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고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특별 인터뷰 5면〉

"안수정등 새겨 육바라밀 실천"

총무원장 진우 스님, 11월 13일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문

육바라밀 중 '정진' 실천 당부
"업장소멸 위해 보다 노력해야"
부모·자식 간 전법 중요성 강조



한 나그네가 큰 불이 난 숲을 피해 달려 광야에 이른다. 한숨 돌릴 즈음 거대한 코끼리가 달려들기 시작하고, 나그네는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언덕 아래 우물을 발견해 뛰어든다. 등나무 넝쿨을 잡고 몸을 피신했지만 우물 밑바닥엔 독을 품은 이무기 3마리가 버티고 있고, 중턱엔 뱀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린다. 또 흰쥐와 검은 쥐는 나그네가 의지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등나무에 매달린 벌집에서 달콤한 꿀물 다섯 방울이 떨어진다. 나그네는 죽을 위기에서도 꿀맛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만다.

〈불설비유경〉에 등장하는 안수정등 이야기다. 욕망 가득한 세상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오욕락에 취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중생을 비유한 가르침이다.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대중설법을 통해 "안수정등 이야기를 새겨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3일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스님은 이날 육바라밀 수행덕목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가운데 '정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무리가 겪는 걱정과 근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선과 기도 등을 통해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육바라밀 '정진'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과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정진으로 선정과 지혜를 갖춰야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업식을 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업장소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수정등'의 비유를 들었다. 중생의 삶(나그네)은 욕망(불)으로 가득하고 윤회(광야)하는데 삼독(이무기)과 오욕락(꿀)에 빠져 위태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우리가 괴로운 건 우연이 아니다. 날씨가 추워서 힘들고,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 괴롭고, 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짜증나는 수많은 일은 인연 연기에 따라 생긴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며 "그 일들로 인해 일일이 속상해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가 힘들어진다"고 부연했다.

사시불공을 비롯해 각종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업장소멸을 위한 방편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조계사 신도님들 개인의 업장소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업장소멸도 필요하다. 혼자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스스로 기도하면서 부모·자식에게 불법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윤석열 정부 종교 편향 행보 경고"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 회의 거쳐 성명 발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법주사 주지)는 11월 14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 제78차 회의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15일 이 같은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장관에 개신교 인사는 다수인 반면 불교 인사는 손에 꼽는 점을 비롯해 대선 전 불교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조계종 총무부 측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종단 입장을 설명했다"며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조계종 사부대중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문화유산분야 공약 내용과 국민통합 약속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며 진정한 성공을 함께 기원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가 지난 오늘 불교계에는 진한 실망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통사찰 관련 정책 법안 개정을 비롯해 예산 반영이 미진한 점을 짚었다. 더불어 문화재청 내 전담조직 신설, 사찰림 보존 등의 공약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고,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 강화 역시 잇단 종교 편향 행보로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신교 주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정신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의 장·차관,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불자들을 배제한 역대 최악의 종교 편향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초의 종교편향 대통령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 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현 정부의 심각한 종교 편향 행보에 많은 불교계 사부대중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역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 정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 편향 행보가 지속될 경우 범불교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추천

11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법원 스님〈사진〉이 단독 추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을 차기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추천했다. 회의는 위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법원 스님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추천됐다.



법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직지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조사국장, 선암사 직영사찰관리인,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제16~18대 3선 종회의원으로 현재 성남 정토사 주지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청사진' 나왔다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서
대학생 전법 중장기 계획 발표
내년 2000명 대학생 불자 결집
'상월결사 대학생 영 캠프' 개최
2026년 3만명 불자대회 정례화
20만명 모이는 세계대회 목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11일 열린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참여 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전법대회에서는 상월결사의 대학생 전법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학생 전법 성공을 위한 사부대중의 뜨거운 원력이 모인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상월결사가 펼칠 대학생 전법 불사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대학생 전법의 중장기 계획 등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내년 중으로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구별 신규 불교 동아리 설립은 현재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도사는 영산대, 마곡사는 공주대, 봉선사는 경동대, 전등사는 인천대, 국제선센터는 홍익대 등에 불교 동아리 설립했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 불자 영 캠프'는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대급 신행축제가 될 전망이다. 캠프의 준비를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맡는 것도 눈길을 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대학생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캠프 행사 전반을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상월결사는 장기적으로 전국 대학 불교 동아리 300개를 신설·운영해 대학생 전법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를 정례화하며,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군 입대-제대-복학-취업으로 이어지는 대학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전법과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방침이다.

상월결사가 제시한 대학생 전법 청사진이 잘 실천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하고 교구·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안정적인 전법 불사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3000만원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월결사는 대규모 모금행사와 소액 모금운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월결사는 "전법대회를 통한 대규모 모금 활동으로 전법위원회 운영의 씨앗을 확보하고, 소액 기부 콘텐츠 개발과 소액 기부 문화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모금과 소액 모금의 조화로운 모금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대학생 전법포교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상월결사와 전법교화' 학술대회 연다

조계종 중앙종회 · 불교학술원
12월 8일 국제회의장서 개최
(사)상월결사 1주년 기념 맞아
상월결사 의미 고찰 등 논의
"내년엔 '대학생 전법' 다뤄"



상월결사 전법의 불교사상적 의미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은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상월결사와 한국불교의 전법교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 불교계 주요 기관들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열린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적극적인 전법 불사에 나섰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작금 불교는 포교가 가장 문제다. 상월결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생 포교"라며 "법인에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학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대학생 전법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처님 전법교화 정신과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의 연계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대학생 전법·포교의 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11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사진〉에서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4년 전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시작된 상월결사는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불교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 같은 흐름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성과 속도를 가지려면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 위기 상황 속에 대두된 해법인 '대학생 전법'과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상월결사 전법 원력이 지향하는 불교 중흥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인도불교의 부흥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역할-불교 학술네트워크 확립을 중심으로',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상월결사의 시작과 전법과정',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상월결사의 불교사상적 의미와 향후 역할'을 발표한다.

대학생 전법 관련해 실질적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법 주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유정현 회장은 '대학생이 원하는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현재 대학생들의 니즈를 사부대중에게 전할 예정이다. 동아리 지도교수를 대표해서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한국불교의 대학생 포교 진흥 방안'을 발표한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문적인 논의를 넘어 전법·포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듣기 위해 유정현 대불련 회장을 발표자로 섭외했다. 대학생과 지도교수들의 니즈를 파악해 전법 불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교학술원도 실사구시적인 불교학 정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내년에는 한국불교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전법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시작점이기도 한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덕수 스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

김영호 통일부장관 예방서 당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

덕수 스님은 11월 14일 인사차 서울 관문사를 찾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 교무부장 도웅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강연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조용식 민간교류관리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천태종은 삼대 지표 중 하나인 애국불교를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평안과 국운융창을 기원하고 있다"며 "남북문제가 잘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모든 국민의 근심도 사라질 수 있다. 전쟁 없이 평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 등 남북 불교도가 함께하는 교류 행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우리 종단에서 정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교류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남북이 계속해서 인도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남북 관계 발전에 앞장서준 천태종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와 국제 인도 지원 기구들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70년 분단 역사 속 남북은 여러 부분에서 이질성이 확대, 심화됐지만 천태종을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준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도 남북 간 교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천태종에서도 원만한 남북 관계를 위해 지혜와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무산 대종사 유지 선양 '무산문화대상' 첫 공모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제1회 무산문화대상 공모

설악산문을 복원해 전법당간을 세우고 한국 선시의 현대화에 앞장섰던 설악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선양하기 위한 '무산문화대상(霧山文化大賞)'이 제정돼 첫 공모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무산문화대상'을 제정하고 첫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산문화대상은 한국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실천해 온 인물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문학 △예술 △사회문화로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해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문학 부문은 시·소설·희곡·아동문학·문학평론 등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중진 문인을 선정하며, 예술 부문은 한국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사진·건축·대중문화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중진 예술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사회문화 부문은 체육·전통문화·음식·의상·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한 내외국인을 수상자로 뽑아 격려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홈페이지(manhaemusan.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재단 사무국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양회는 "재단은 무산문화대상의 운영을 위해 무산문화대상 후보자 추천, 심사, 시상 등을 모두 관리하며 매년 무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조계사 원심회 35돌…“지혜의 눈으로 불법 수호”

11월 12일, 원심회 법당서 법회
35년 활동 감사 · 격려 메시지
“장애인 포교 더욱 매진” 약속
불교수어 현황과 과제 토론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창립 35주년을 맞은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11월 12일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쉼없는 장애인 포교 매진을 다짐했다.

“원심회는 35주년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화합에 더욱 앞장서며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의 밝은 눈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살아가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11월 12일 서울 원심회 법당에서 ‘원심회 창립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원심회는 ‘원은 둥글어서 어디에서나 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격이 없이 하나의 마음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정체하지 않고 발전하는 밑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수어법회를 필두로 수어 교육, 한글 교육, 불교 수어영상 제작, 불교 수어 창안 및 정립 등 수많은 활동을 이어오며 명실상부 장애인 포교의 1번지로 인정받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 짓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불자들의 신행단체로, 원심회의 명성은 불교계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타종교 관계자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35년간 쉼없이 달려온 원심회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지도법사 정수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조계사는 장애인에 대한 포교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조계사 원심회가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원심회 창립법회를 맞아 장애인 · 비장애인 불자 모두는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않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지혜의 문을 열길 바란다”면서 “조계사는 장애인분들이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나투신 부처님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길 발원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장애인 포교를 위한 열정, 낮은 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신도회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황보희, 이선이, 이명국 회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행활동으로 참된 불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부처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포교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청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주는 BTN불교TV와 청각장애인 불자들을 치료해주고 의약품을 보시해주는 마하의료원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원심회가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전법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계사를 비롯해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이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포교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심회는 농아부 김경환 포교사가 대표로 한 수화 발원문을 통해 “원심회 회원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꾸준히 정신할 것을 맹세한다”면서 “온 세상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환하게 빛나길 두 손 모아 지극정성으로 합장발원한다”고 말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불교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독교 수어사용 현황과 신규 수어 표준화 과정(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은퇴목사) △가톨릭 농인 공동체 안에서의 청인 봉사자의 교육 및 활동(한유 천주교 에파타 성당 봉사분과 부분과장) △불교수어 표준화와 불교수어 사용의 문제점(김장경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김경환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 포교사, 박미애 수어통역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계사 대중, ‘십시일반’ 성역화기금 희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 신도회 등 5300여만원 마련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성역화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길 발원하는 조계사 대중의 마음이 모였다.

조계사(주지 원명)는 11월 15일 대웅전에서 ‘조계사 성역화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앞서 진행한 ‘조계사 성역화불사 원만성취 발원’ 3000배를 통해 모연한 3307만원을, 조계사 신도회 박소윤 수석부회장은 2000만원을 각각 주지 원명 스님에게 전달했다.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3000배를 통해 모연한 기금을 원명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원명 스님은 조계사 대중이 마련한 기금에 감사인사를 표하면서 신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조계사는 2007년 데뷔한 가수이자 작사가인 목비(본명 이선옥) 씨와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김다현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계사가 사찰 차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홍보대사는 조계사 신도들의 요청으로 법당에서 노래 솜씨를 뽐내고 “조계사를 자주 찾아 노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화쟁위, 갈등해결 사례 수기 공모

11월 14~30일 접수…발표는 12월 1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가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갈등과 다툼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화쟁 사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곧 ‘화쟁’이며, 누구나 ‘화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모전에는 일상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갈등을 해결했더니 포교가 잘 됐던 경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 불교적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공모에는 불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0자 원고지 10장 이내 또는 A4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이메일(future108@buddhism.or.kr)이나 화쟁위원회 사무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A동)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는 12월 13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작품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장상 1명에게 100만원, 미래본부 사무총장상 2명에 각 50만원,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 3명에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9일 개최된다.

화쟁위원장 정문 스님은 “본 공모전을 통해 내가 행하고 겪은 화쟁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들려주며 원효 스님의 사상을 실천해 보고자 한다”며 “불자들 모두가 화쟁 법사가 되어보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02-737-0864

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쉽게 접했으면’ 발원 담았죠”

종원 스님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 기념법회

11월 13일, 대각사 대각성전서
어린이 · 청소년 · 군 · 대학생 등
포교 경험 담백하게 엮은 에세이

서울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의 신간 도서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종원 스님은 11월 13일 경내 대각성전에서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에는 스님이 30여 년 간 어린이 · 청소년 · 군 · 대학생 · 대중 포교 등 다양한 전법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생생한 경험이 진솔하고 담백하게 담겨있다.

출판 기념법회는 노은주 명창의 판소리로 시작해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봉정식, 인사말, 축하인사, 대각사 용성합창단 · 중앙합창당 · 홍승아 첼리스트 등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조계종 前 교육부장 지우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수현심 대각사 명예회장, 종원 스님 속가 부친인 권동용 강원도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원 스님은 “이번 책은 2020년 대각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그때그때 느낀 마음을 글로 적어낸 것”이라며 “보다 쉽고 편안하게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적인 내용을 엮어냈다.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잘 홍보하고 도반들에게 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책이 출판되기까지 애써준 이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며 “책속에 알알이 배인 신심과 환의, 지혜와 자비의 이슬들이 모든 불자님들의 가슴에 촉촉이 스며들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서울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

신간 출판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종원 스님은 늘 부지런하고 근성 있게 맡은 소임에 책임을 다한다”며 “이번 책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중들에게 공감시킬 것인지 흐트러지지 않는 발원과 깊은 고민에서 나온 성과물”이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교육원 前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본인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출가 이후 소중한 삶을 정리한 종원 스님의 책이 더욱 값지다”며 “귀한 책인 만큼 두루두루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책 출간을 계기로 대각사가 더욱 큰 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책을 통해 불법을 펼칠 수 있는 만남이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사미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종원 스님은 해군 해병대 법사 대위로 전역했다. 백령도 흑룡사, 진해 흥국사, 서울 통해사 주지,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군종특별보좌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등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옥천암 극락전 중수불사 회향…아미타불 개금

11월 11일, 관음 · 지장보살상 조성
진우 스님 “국내 대표 관음성지”

서울을 대표하는 관음기도도량인 조계종 직할사찰 옥천암이 극락전 중수불사를 마치고 보다 개선된 대중의 기도처를 공개했다.

서울 옥천암(주지 원경)은 11월 11일 경내에서 극락전 중수불사 관음 · 지장보살 조성 및 아미타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심우 스님 등 30여 명의 중앙종회의원, 법주사 스님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수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옥천암 극락전은 앞서 법당 지붕과 기와, 벽체, 내부 마루 등이 노화돼 대중이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옥천암은 중수불사를 통해 극락전을 해체 보수하고,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새로 조성했다. 또한 기존 아미타불상은 개금불사를 마쳤다. 불상은 인간문화재 전기만 선생이 조선시대 양식에 맞춰 동불로 조성했으며 아미타불은 좌대 포함 5자 반,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4자 반 크기로 했다. 점안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했다.


중수불사를 마친 옥천암 극락전.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회향식에서 오랜 시간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애쓴 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옥천암은 법당이 극락전 하나밖에 없어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참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극락전 불사가 회향한 것은 옥천암 대중의 노고 덕분”이라며 “불사보다 중요한 건 33 · 34대 총무원장을 지내신 자승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포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경 스님은 “서대문구에만 대학교가 9개 있다. 불교동아리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옥천암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불사는 앞으로 인재불사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옥천암이 국내를 대표하는 관음성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천암은 강화 보문사와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양양 홍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관음성지로 꼽힌다. 스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담겨 있는 옥천암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옥천이 보다 잘 조성돼야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이번 불사 회향은 원경 스님의 원력과 옥천암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이뤄진 결과물”이라며 “오늘 하루만의 기쁨이 아닌 세세생생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축사에서 “옥천암은 서대문구에 있는 15개 사찰 중 조계종 직할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역할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청년을 위한 도량을 크게 만들어가는 데 구청이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도선사 “청담 대종사 유훈 따라 정진”

청담대종사 열반 52주기 추모다례 봉행

11월 15일, 호국참회원서

한국불교 청정성 회복과 불교정화운동에 한평생을 바친 청담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추모재가 열렸다.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열반 52주기 추모 다례재를 청담 대종사가 생전에 건립한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청담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청담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서 헌다하고 있다.

문도를 대표해 회주 혜암 동광 대종사는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고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회고한 뒤 “열반하신지 5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큰스님을 기억하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잘 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를 대표해 “큰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문도들이 더욱 화합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도선사는 청담대종사 열반 52주기를 맞아 청담대종사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고불식과 청담대종사 유묵(품) 전시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다례식 후 사리탑에서 봉행된 정비불사 고불식에서는 주지 태원 스님의 고불문 낭독, 정비불사 보고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수능 스트레스 템플스테이로 날려버려”

문화사업단, 수능 응시자 대상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
11월 16일~12월 15일 접수

수능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치열한 입시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대상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는 전국 58개 사찰에서 본인 부담금 1만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수능일인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과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문화사업단은) 청년 · 대학생 및 새내기들의 건강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회, 화합승가 구심점…공익 실천 역할 확대”

광용 스님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참여, 도약, 미래’.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비구니회장 출마 때부터 강조한 키워드다. 올해 9월 18일 만장일치로 전국비구니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은 앞으로 4년 회장 임기 동안 비구니 권익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출마 과정에서 제시했던 종책을 구체화해 전국비구니회를 한국불교의 당당한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취임식을 나흘 앞둔 11월 1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광용 스님을 만났다. 〈편집자주〉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임제록〉의 ‘비록 지금 여기일 뿐 다른 더 좋은 시절은 없다’를 읊조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용 스님은…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9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내원사, 불영사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했고 2007년 동대학원 불교학과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 제12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94년 서울 영등포구에 대림포교원 개원, 2010년 마포구에 성림사를 건립했으며 마포구청 공무원 불심회 창립과 불교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지역포교에 진력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 공로상, 2019년 마포구청장 문화예술부문 표창장, 2020년 마포경찰서 감사장을 받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회관 상주하며 불자와도 스킨십
수행결사·미래세대 양성에 진력
재정위한 수익창출 사업도 구상
“비구니스님 뭉치면 못할 것 없어”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한국 비구니 승가. 통합종단 출범 이후 이룩한 비구니 승가의 발전은 수행과 교육, 포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어진 임무에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비구니스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비구니스님들이 6000여 비구니스님을 이끌 수장을 뽑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승가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다.

9월 18일 치러진 제13대 비구니회장 선거는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비구니회장 선거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마치 축제처럼 치러진 선거에서 광용 스님은 6000여 비구니스님들이 한마음 한뜻,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하나 된 비구니 승가의 모습은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화합 승가의 본래면목을 전 종도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깊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절차나 규정에 대한 갈등과 네거티브 논란 없이 여법하게 마무리된 만큼 비구니스님들 사이에서도 회장스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10월 31일 인수인계를 받고 회장 업무를 이제 막 시작한 광용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과 ‘참여와 도약, 미래’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구니승가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간다는 설렘이 있다”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11월 첫날부터 총무, 교무, 도감 노전 등 10여 명의 소임자 스님들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상주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이 비구니스님들이 모여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자 중심이 되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스님은 회관이 긍정적인 사고와 화합을 통해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한 공간으로 꾸려지길 서원한다. 비구니회관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법룡사 주지로서, 재가불자들과의 스킨십에도 신경 쓰고 있다. 광용 스님은 “오랜 기간 주지와 회주 소임을 보며 쌓은 사찰경영의 노하우를 법룡사에서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마음 편안하게 오가며 쉬어갈 수 있는, 온기 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6000여 비구니스님들에게 제시했던 △화합 승가 구축 진력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역량강화 및 정체성 확립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떼었다. 사회복지부와 국제부를 각각 복지부와 국제사회부로 개편하는 등 비구니회 조직과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 것도 종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광용 스님은 지난 회장스님들의 사진을 살펴보며 “회장스님들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구니승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부, 기획실 등 7개 부서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불교영적돌봄연구소 등 각 부서에서도 종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푸르니자연음식협동조합을 사업부로 독립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비구니회의 여러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광용 스님은 “종책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부·국장 스님 28명과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모든 일은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12대 회장 본각 스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전국비구니회의 획기적인 발전과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13대는 12대에서 해 놓은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그 위에 주춧돌을 하나 더 올린다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살면, 집행부를 바라보는 6000여 비구니스님들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비구니스님들이 뭉치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집행부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이 함께했다. 광용 스님은 “소임자들과 적극 소통, 비구니승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광용 스님은 미래세대 비구니스님 인재양성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국어, 국제 비즈니스, 불교 문화콘텐츠 활용, 유튜브 활용법 등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수요에 최적화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비구니회 차원에서 도입, 운영해 능력개발 의지가 강한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려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스님을 육성, 불교홍포와 전법실현에 진력해 온 비구니승가의 유구한 수행명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구니승가 본연의 수행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승가공동체 수행결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수행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비구니 승가상 정립을 위해 수행결사를 활성화하고 지속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면서 “열린 공간으로써 사회와도 소통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한다면 출가자 감소에 대한 복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임기가 끝나면 어떤 비구니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스님은 “성과를 많이 남긴 능력있는 회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웃었다.

“수행할 때 늘 품고 있는 것이 눈에는 잠이 적게, 입에는 말이 적게, 위에는 밥이 적게라는 것”이라고 입을 뗀 광용 스님은 “언제나 더 진지하게 나를 성찰하고 극복하는 일에 집중한다”면서 “보다 더 겸허하고 자비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그저 노력하고 일할 뿐입니다. 굳이 바람이라면 함께한 소임자 스님들과 대중들에게 조용하지만 잘 살았고, 따뜻했고, 평안했으며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제록〉의 ‘바로 지금 여기일 뿐 다른 더 좋은 시절은 없다’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장에 출마하기까지 결심이 쉽지 않았다는 광용 스님. 그렇기에 화합승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공익을 위한 비구니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 회향을 나만이 아닌 비구니승가와 대중을 위해 대승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겠다”고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의지를 다졌다.



미소원, 환경보호 수호신장 되다

11월 11일, 개원 12주년 기념법회 봉행

아빠봉사단 · 청년회 등 모여
공로장 · 구청장상 수여식도
JTS에 성금 3300만원 후원
난치병 치료 · 환경운동 지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개원 12주년을 맞아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환경을 위한 자비나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1월 11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미소원 개원 12주년 및 청년회 7주년 아빠봉사단 4주년' 기념법회 봉행했다. 미소원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도시락 지원 사업과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채로운 자비행을 펼쳐왔다. 특히 산하기관인 아빠봉사단은 창단 이후 부산 지역의 거주 취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 사업에 앞장서왔다. 청년회는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한 수행을 이어왔으며 일일찻집을 개최해 지역 청소년 및 장애인 후원 사업을 펼쳤다.

미소원은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며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로 등록하고 '환경을 위한 수호신장'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을 비롯해 장유정 이사장, 양준동 평화시장불자회장, 류광열 미소원 청년회장 등 미소원 회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법회는 △축시 낭송 △개회사 △회기 입장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경과보고 △공로장 수여 △동구청장상 수여 △녹색사찰 협약 △기금전달식 △축사 △환경보호 영상 △인사말 △내빈소개 및 법인 임원소개 △사홍서원 △행운권 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미소원은 개원을 축하하며 나눔을 더욱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미소원은 한국JTS에 33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미소원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모금했으며, 미소원 회원들은 경조사를 맞으면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미소원 회원들이 1년 동안 모은 자비나눔 성금이다. 아울러 미소원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난치병 환우 돕기 저금통을 모은 성금과 기도동참금을 더해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부산불교환경연대에 활동 지원 보시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법회에선 미소원을 후원하는 나눔도 이어졌다. 평화시장불자회와 녹십초 부산본부는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개원 12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청년회 · 아빠봉사단과 함께 기념법회를 봉행한 미소원.

미소원은 이날 미소원의 자비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뜻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시상식도 진행했다. 공로장은 오수복, 최순이 前이사에게 각각 전달됐으며 조현삼 아빠봉사단 부단장과 박미주 미소원 청년회 초대회장에게 동구청장상이 수여됐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회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미소원은 녹색사찰로서 환경보호 및 실천에 앞장서고 자비후원 나눔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41회 불교미술사학회 추계 학술대회 '성료'

학술대회 · 영축학술상 시상식
불상 · 불화 · 복장 등 재조명
학술상 이연주 한글博 연구사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진응)가 11월 11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41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회 및 영축학술상 시상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자의 연구 발표와 국외 연구자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연구 발표는 △삼국시대 반가사유상 좌구 연구(심희진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조선후기 화승 하은당 응상의 불화 연구(손수연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원) △조선 전기 복장의 특징(이선용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조선시대 여성의 사경 제작과 발원(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통도사의 고승 진영 연구(신광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이어졌다.

토론은 박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유대호 조계종 총무원 문화재팀장, 김광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석혜영 경북대 학술연구교수, 박세진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맡았다.


불교미술사학회가 11월 11일 개최한 제41회 학술대회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초청 강연은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류슈대 대학원 교수가 '성지표상(聖地表象)의 변용-관음시현상(觀音示現像)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초청 강연은 새롭게 발견된 고려시대의 관음보살도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전기에 그려진 관음화상에 보이는 성지표상의 변용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관음시현상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새롭게 임명된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불교미술사학회장)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사부대중의 뜻을 잘 듣고 소임을 받들어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에 더욱 단단히 다지도록 노력하겠다. 종정예하의 뛰어나신 안목과 문화예술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2001년에 창립한 불교미술사학회는 영축총림 통도사와 성보박물관을 기반으로 한국 불교미술사 관련 회화 · 조각 · 건축 · 공예 · 보존수복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학술단체다. 불교미술사학회는 매년 두 번의 학술대회와 불교미술 전문 학술논문집인 〈불교미술사학〉을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0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36집의 학술지를 발행했다.

한편, 제8회 영축학술상 수상자는 불교미술사학 34집에 〈서울 영국사지(寧國寺址) 출토 금강령(金剛鈴) 연구〉를 게재한 이연주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다. 영축학술상은 불교미술사학의 발전과 학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논문상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 유엔참전용사 왕생극락 기원

'턴 투워드 부산' 동참…부산 각 사찰 타종의식

부산 전역 사찰이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타종의식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타종의식을 봉행했다.〈사진〉 부산지역 각 사찰은 오전 11시에 모든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범종을 울림으로써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팔관회를 회향하는 뜻을 담아 진행된 이 행사에는 금정종림 범어사와 부산 남구 문수사, 동구 여래사를 비롯해 부산 전역의 사찰들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 불교도가 세계인과 함께 같은 시각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호국사상을 실천하고 선양하기 위한 의식"이라며 "법음과 함께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세계평화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기원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역사회에 배추 1500포기 '김장나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추위 녹이는 온기 되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김장에 나섰다.

봉선사(주지 호산)는 11월 14일 오전 경내 육화당에서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수월 대종사, 능엄승가대학장 정원 대종사, 주요 소임자 및 학인스님들, 김남명 교구신도회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선사는 전날 배추 1500여 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직접 준비했으며, 이날 오전 8시부터 호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절인 배추에 속을 넣고 미리 준비한 통에 김장을 나눠 담았다.

주지 호산 스님은 "봉선사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염원하는 봉선사 사부대중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에게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 위한 붓다볼 명상 공부

파라미타, 붓다볼 지도자 연수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가 11월 11~12일 흥법사 및 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실에서 '붓다볼(싱잉볼) 힐링 명상 지도자' 과정 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전국에서 활동하는 파라미타 지도자를 위한 이번 연수는 소리 치유 명상을 일상에 적용하고 청소년명상 지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숙련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붓다볼 명상 체험은 지도자들의 번아웃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붓다볼의 이해 및 명상 △붓다볼 명상실습 △붓다볼 걷기명상 △붓다볼과 아로마 △동작테라피 △차크라명상과 사운드테라피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에는 파라미타 지도법사 스님을 비롯해 교사 40여 명과 봉사자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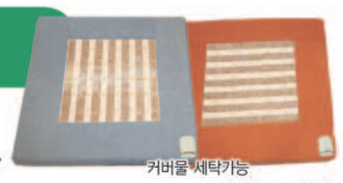
김경숙 대표는 "붓다볼은 진동과 파동, 소리와 동작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쉽고 빠르게 이완시킨다"며 "이완명상방법을 습득해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등으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는 명상치유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커버물 세탁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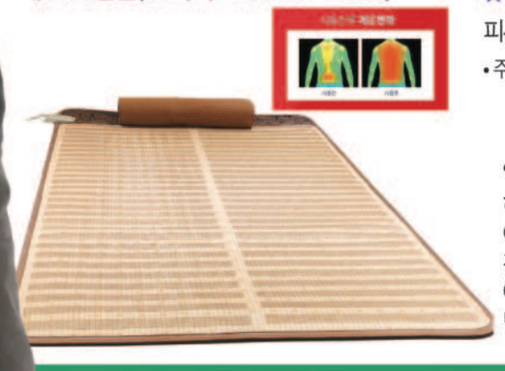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 · 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

진각종, 창원심인당 신축…“포교도량 우뚝”

11월 13일 헌공 및 보존이운불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
“창원시민 마음수행처 되길” 발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은 11월 13일 창원심인당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설계에 따라 건설된 산업도시 창원시에 자리 잡은 창원심인당이 법계에 헌공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1월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심인당에서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헌공불사는 금강아사리 경정 총인, 교법아사리 통리원장 도진 정사, 행법아사리 교육원장 효명 정사의 본존이운가지불사에 이어 △강도발원(총무부장) △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경과보고(건설국장) △기념사(통리원장) △축사(부산교구 금강회장) △인사말(창원심인당 금강회장) △주교인사 △공로패 증정 △회향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창원지역 전체가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추로 자리하고 있듯이 창원심인당 역시 종단의 교화불사를 견인하면서 경남지역 포교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하리라 믿는다”면서 “창원심인당 이전 신축은 신교도 여러분들의 수행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새 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구 금강회장 안인수 보살은 축사에서 “창원심인당 헌공불사 인연공덕으로 심인당 신교도는 물론 나아가 창원시민들에게 마음의 수행처가 될 수 있는 큰 도량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창원심인당 금강회장 보현심 보살은 “창원심인당을 더욱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화합하고 용맹정진해 더욱 빛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심인당 주교 일연 정사는 “모든 분의 원력으로 심인당이 원만하게 법계에 헌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원력으로 바탕으로 심인당 발전은 물론 종단발전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정원장 능원 정사, 총무부장 겸 서울교구청장 신혜 정사, 교무부장 정법 정사, 대구교구청장 선덕 정사,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 경주교구청장 원주 정사, 경북교구청장 대원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 등 스승과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등 신교도들이 참석했다.

한편,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심인당 건설에 힘쓴 (주)무겸종합건설 김원연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창원심인당은 진기 75(2021)년 10월 21일 제430회 정기종의회에서 신축을 결의하고 진기 76(2022)년 8월 12일 지진불사와 진기 77(2023)년 6월 22일 상량불사를 봉행했다. 연면적 1,238.61㎡,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층에 심인당. 4층에 법담실 및 자성학교, 5층에 사택이 자리하고 있다.

100돌 강릉 관음사…“미래 100년으로 도약”

11월 12일 100주년 기념법회
“도심 포교당 전형 만들 것”



관음사는 11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건 100주년을 맞은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주지 무주)가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관음사는 11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전법과 미래 세대 포교에 진력, 도심 포교당의 면모를 선보일 것을 다짐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민족의식 제고와 불교 근대화를 목적으로 창설된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와 용주사 수원포교당 수원사와 함께 근대 한국불교 3대 도심포교당으로 손꼽힌다.

특히 금천유치원, 장학재단, 강릉불교대학, 장애인 복지관 등 교육과 포교 불사에 역점을 두고 역사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봉사회, 청광회, 반야회, 수자타회 등 신도 중심의 봉사단체를 통한 무료급식과 연탄나눔, 이웃돕기 등 활발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종단과 발맞춰 도심 포교당을 중심으로 전법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전법을 향한 일념으로 청소년, 청년대학생 불교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교 전당을 만들겠다”면서 “희망적인 포교당,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전환의 패러다임을 일궈내, 도심포교당의 전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음사 주지 무주 스님은 신도들에게 “힘을 모아 미래 100년을 향한 포교당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당을 지켜내는 건 불자 여러분”이라면서 “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해 강릉 중심가에 불은이 퍼져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스님은 최근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원생이 급격히 줄면서 폐원 절차를 밟게 된 금천유치원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문을 닫지만 포교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사찰과 불교 발전에 힘쓴 신도들에게 공로패와 표창패를 전달했다. 또 창건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했다.

유영숙 관음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일의 희망을 가꿔나가고,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떨쳐내고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는 1922년 창립된 ‘강릉불교포교소’에서 시작됐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금강산 유점사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축이 됐다. 포교를 제일 과제로 전법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불교발전을 견인해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천은사, 구례군에 쌀 2000kg 기부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가 11월 14일 구례군청(군수 김순호)에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쌀 2000kg(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대진 스님, 김순호 군수, 김종순 천은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참여했다.

대진 스님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전달해주신 천은사 사부대중의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구례 희망나눔가게, 산도나누고가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구례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김종순 신도회장은 “천은사가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사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큰 뜻에 신도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재’ 봉행

11월 11일, 경내 표충사에서
호국대전 회향 위한 공청회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나선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는 11월 11일 서산대사 탄신 제503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를 경내 표충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이날 행사는 조실 보선 스님, 회주 월우 스님, 주지 법상 스님과 본말사 주지 등이 참여해 유교식 제향의식과 불교 법요식이 진행됐다.

이날 제향은 초헌관 김성일 전남도의원, 아헌관 김광철 완도경찰서장, 종헌관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이 참여해 의식을 집도하고, 명현관 해남군수.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윤재갑 국회의원, 김동하 해군 제3함대 참모장 등이 헌관, 집사로 참석해 서산대사에게 유교식 제향을 올렸다.

법요식에서 주지 법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이야기는 이념과 욕심의 대립, 그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쌓아온 감정의 충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현실을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자비심을 실현해 나가는 스스로의 정진행에 달려있다. 하루속히 지구촌에 평화의 함성과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빠른 전쟁 종식을 기원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500년 전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서산대사와 같은 행적을 잘 배워서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훌륭한 마음을 배우고자 함”이라며 “종교란 서로 잘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잘못 배우는 것이고, 이를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다투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명현관 해남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서산대사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자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흥사는 이날 호국대전 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호국의승 위패 봉안을 위한 방안연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에는 △김상영 전 중앙대 교수의 ‘〈호국의승열명록〉의 주요 내용과 발간의의’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팀장의 ‘호국의승의 문화재적 관점과 추모를 위한 불전기물 제안’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호국대전 내부공간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서산대사는 1520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21세 숭인장로를 은사로, 일선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법명은 휴정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국에 격문을 돌려서 스님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문도 1500명의 의승을 통솔하여 명나라 구사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

대흥사의 표충사는 서산대사의 영정을 봉안한 사액사우(賜額祠宇)로서, 대사의 위국충정을 기리고 그의 선풍이 대흥사에 뿌리내리게 한 은덕을 추모하기 위해 정조 12년인 1788년에 건립되어 전남 6개 고을의 부사, 군수, 현감, 그리고 대흥사 스님들이 봉향하도록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대 불교동아리, 공백기 깨고 재도약

‘군산대 불동이들’ 창단식
24교구 선운사서 활동 지원



오랜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 국립군산대 불교동아리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군산대학교 불교학생회는 11월 4일 군산 관음사(주지 도천)에서 창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군산대학교 불동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군산대 불교동아리는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고창 마하사 주지 정혜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전법위원들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지도교수는 군산대 철학과 권순홍 교수가 맡았다.

현재까지 16명의 학생이 참여한 군산대 불교동아리는 철학과 학생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청년뿐만 아니라 올해 철학과에는 60대 이상 만학도도 입학해 불교동아리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 창단법회에는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선운사 재무국장 수찬 스님, 현적 스님 등 전법위원들과 권순홍 교수,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했다. 선운사는 군산대 불교동아리를 위해 템플스테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표창장 수여를 비롯해 적극적인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군산대학교 불교동아리는 과거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나 회원 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다. 다행히 지난 2011년 재창립법회를 봉행하면서 잠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신입회원 부족을 이유로 다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 찾는 공부는 무엇인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박종래 교수 초청 강좌



‘한마음을 찾는 공부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특별강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2일 경내 강당에서 한마음과학원 회원인 박종래 교수(서울대 공대)를 초청해 신도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강좌는 △제1부 우리 공부의 핵심은? △제2부 ‘나’의 실상? △제3부 ‘내 삶’의 실상? 삶은 고가 아니다! △제4부 내 한생각에 일체 움직이리라! 주제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박종래 교수는 대행 스님 법문과 뜻풀이 반야심경을 예로 ‘한마음’에 대한 과학적, 신행적 해설을 진행했다.

혜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분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강연이어서 초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행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을 비롯해 혜전 스님과 김용섭 신도회장, 김희남, 최성휴 고문 등 2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 나갑시다”

증심사, 11월 15일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1월 15일 경내 오백전에서 ‘계묘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증심사 오백나한대재는 오백전에 모신 석가모니불, 10대 제자, 16성중, 오백나한께 공양을 올리고, 신도들의 올바른 신행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로 매년 봉행하고 있다.

이날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중국 방거사의 게송을 읊으며 “오늘 이 자리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선발하는 자리이다. 응시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면접을 보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안의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마음을 비우면 내 안의 부처를 맞이할 수 있다”며 “육바라밀을 수행해 삼독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자향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노전 종문 스님,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오백대재 기도가 이어졌다.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중현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생신상, 우리가 책임집니다”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12년간 孝잔치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 (사)붓다와 진안자원봉사센터가 12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1월 10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렸다.<사진>

행사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사)붓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케익을 전달하고 큰절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불 한 채도 전달됐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진안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만수무강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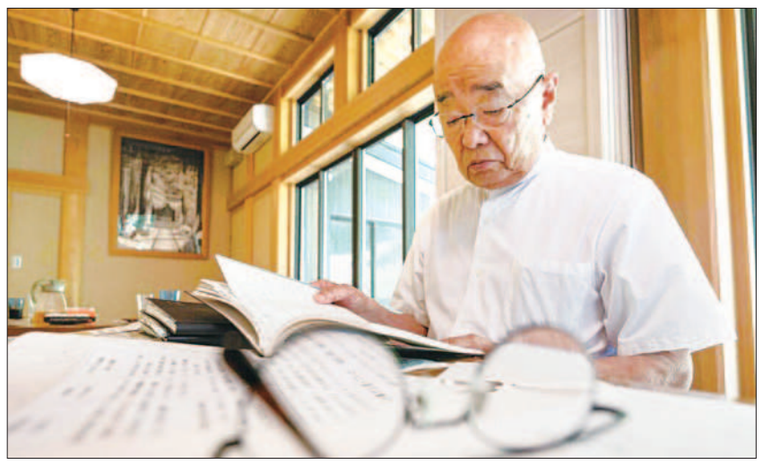
보경 스님도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日 스님들, 사기범죄 당한 노인 '마음 치유'

전국 50여 도반스님들과 함께
무료상담 네트워크 만들어 활동
상시로 전화 · 방문 상담 가능해
"공감이 피해 회복 만큼 중요"

박영빈 객원기자



피해자가 남긴 자료를 살펴보는 에이이치 스님. 사진출처=AFP통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노인층을 겨냥한 사기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상담에 발 벗고 나선 스님들이 화제다.

지난 11월 10일 'AFP 통신' 'UCA 뉴스' 등 외신은 피해상담 네트워크를 만든 시노하라 에이이치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보도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이 많은 일본. 이 노인들을 겨냥한 다양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조직적 사기로 인한 피해총액은 370억엔(약 3220억원)으로 2021년보다 30%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몇 년 만에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특히 이 사기범죄 피해자 90% 가까이는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고령자들이 사기에 취약한 이유로는 스마트폰 사용의 미숙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노하라 스님은 출가 후 오랫동안 캄보디아 난민캠프와 빈곤층을 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후 일본에 귀국해서도 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돕거나, 자살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명성이 높다. 최근 스님은 50여 명의 도반스님들과 함께 사기 피해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스님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인층에 대한 사기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특수 사기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고 말했다.

시노하라 스님이 피해자 상담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들이 가지는 자기혐오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됐다. 스님에게 상담을 받은 후 사망한 70대 여성이 남긴 일기를 받아 본 스님은 "피해자는 일기를 통해 죽을 때까지 사기를 당한 것이,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인연이 끊긴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은 죄인으로 평생 그 고통을 짊어져야한다는 아픔을 이야기했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노령의 피해자가 이러한 아픔을 안고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상담을 통해 스님은 노령자들이 피해에 취약한 이유가 경찰의 분석처럼 최신 기술에 취약한 점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들과 오랫동안 교류하지 못한 고독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가족이라며 돈을 요구한다. 고독한 노령자들은 이때 다시금 자신이 가족들과 연결되고 도움이 되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로 쉽게 생각해버린다"며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정신적인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가능한 언제 어느 때나 상담을 받으려 하고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 오는 분들도 있다"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금전적 피해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日 조동종, 남미포교 120주년 맞았다

1903년 우에노 스님이 포교 시작
남아메리카 이주노동자 신행활동
7월부터 강연·기념법회 등 이어져



조동종 남미포교 120주년 기념법요식 모습. 사진출처=소토젠-넷

일본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일본불교의 영미권 포교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어간다. 이 가운데 일본 선종의 대표적인 종단인 조동종이 남아메리카 포교에 나선지 12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11월 8일, 일본 조동종의 소식을 전하는 '소토젠-넷'은 일본 조동종 포교의 역사를 소개하며 기념행사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조동종 측은 "남아메리카의 농장에 노동자로 이주한 일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신행활동이 이어졌고, 1903년 이들의 요청으로 효고현 출신의 선사 우에노 타이안 스님이 페루로 건너간 것이 정식 포교의 시작"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스님의 활동에 힘입어 1907년에는 일본 이민자들의 도움을 받아 페루의 수도인 리마 교외에 남미 최초의 불교사찰로 꼽히는 지온지(慈恩寺)를 창건했다.

기념행사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7월 22일에는 '선의 이야기', 8월 12일에는 '선의 입문'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8월 중순부터는 페루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 각국에서 모인 선수행자들과 포교사, 불자들이 모여 기념 집중 안거와 친목교류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기념법회와 문화행사엔 현지에서 수행중인 40여 스님들이 참석, 그 외 신자와 각국의 조동선 수행자 등 일반 참가자 15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했다.

8월 25일에는 지온지 법당에서 사찰을 창건하고 지켜온 일본인 이민자들과 현지 수행자들의 영가를 천도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지온지 측은 "최초의 사찰인만큼 일본이민자 1세대부터의 위패나 묘를 지키고 있다"면서 "항상 일본 달력으로 우란분절의 기간이 되면 리마를 비롯해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일본계 후손들이 사찰을 찾아온다. 지온지는 단순한 사찰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남아메리카의 포교현황에 대해 "지온지를 비롯해 현재 남아메리카 각국에 6명의 국제포교사가 각자의 선센터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포교법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동종 측은 "120년 전 처음 페루로 건너온 타이안 선사에 의해 전해진 법등은 지금껏 다 설명하기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현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선의 뿌리를 이 땅게 깊고 확실하게 내리면서, 그 줄기를 키워나가며 이 땅에 더욱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제1회 선불교 문화축제 개최

난화사 소장 유물 53점 선보여
중국 경제 정책 기여를 목표로



북송시대 조성된 오백나한상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출처=난화사

지난 11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열린 제1회 선 불교 문화축제와 전시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

제1회 광동-홍콩-마카오 대만 선불교 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광동성 소관 조계산에 위치한 남종선(南宗禪)의 탄생지인 난화사(南華寺)에서는 '다르마의 발자취를 따라: 난화사 1500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에서는 난화사 소장 불교 유물 53점이 대중에 최초로 공개됐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광동, 홍콩, 마카오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협력 파트너 국가의 불교계와 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불교 인문학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교류를 통해 광동과 홍콩 ·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잇는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전시에는 난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북제(北齊, 550~557년)시대에 조성된 청동 불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북송(北宋, 960~1127)시대에 조성된 오백나한상은 두껍고 간결한 북송시대의 목조각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서기 502년에 창건한 난화사는 육조혜능(638~713) 선사가 30여 년간 돈오 법문을 펼쳤던 행화도량(行化道場)이다. 사찰에는 대장경, 율장, 법의 등 많은 국보를 보존하고 있다. 가장 귀중한 유물 중 하나는 혜능 선사의 등신불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베트남 사원, 화염병 투척에 방화 피해

빠른 진압으로 인명 피해는 없어
증오 차별 반대 성명문 이어져



화염병 투척 방화로 피해를 입은 명상센터. 사진출처=후엔짱 불교 명상센터

지난 11월 7일 미국 텍사스의 지역 방송사 'ABC13'은 베트남계 불교 명상센터의 화염병 방화 피해 소식을 전했다.

미국 텍사스 뉴케니 자치구에 위치한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가 화염병 투척으로 방화 피해를 입었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가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11월 5일 오후 9시 45분경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휘발유 통을 들고 명상센터로 진입했다. 출입구 앞에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이고 창문으로 던지자 센터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남성은 황급히 달아났다.

다행히 화염병 투척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의 수잔 응우옌 스님은 "화재가 발생하자 센터 직원과 이웃들이 진압을 도왔다"며 "이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 누구에게도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방화범에게 화가 나지는 않지만 단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지난 2022년 10월에 요사채가 전소된 일이 있었는데, 소방 당국은 전기 문제라고 말했지만 같은 일이 발생한 지금 방화가 의심되며 다시금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의 화염병 투척 방화 피해 소식을 들은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The Asian American Foundation) 대표는 "범인의 방화 동기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소속감이 흔들렸다"면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 시설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증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은 안전과 보안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의회와 백악관이 종교 기관들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할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재난관리청(FEMA)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방화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제12주년 창종기념법회를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봉행했다.



종정 법운, 원로수덕, 원로동화, 지암, 설봉, 경담, 민철, 경봉, 법송, 자성, 지송, 추송선각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응공조계종 법운 대종사는 '수행을 하는데 아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바른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인셍의 무상함을 알고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뒤돌아 보고 자성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법문을 설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010—3544—2605 / 팩스 054)974-2705

금륜재 지도자 연수생 모집

금번 전통불교문화예술협회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행해져온 금륜제를 발굴 복원하여 옛 화려했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자 교육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말살 되었던 소중한 문화의식 신도들의 자손과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는 복된 신앙을 되찾아 전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금륜천제가 불교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한 무지 일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드레도 자손들을 위해 칠성당에 복을 빌고 대웅전에서 자성을 밝히는 인연 도법 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호인과 함께 많은 불자에게 공개하겠읍니다. 항간에는 몇몇 주지스님들께서 절 운영이 어렵다고들합니다.

왜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 소홀이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참선 일변도로 신앙 행태가 무지함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며 운영이 어렵다는 결과를 낳고 말았읍니다. 금륜제는 사찰을 꽃피우고 신심을 고취하며 화기애애한 생기를 가져올 것이며 융성쾌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바 있으시다면 동참하시기를 적극 당부들이며 금륜재 지도법사 교육을 소개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 소개해올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나무금륜보게치성광 여래불

금륜재

1부 : 칠성각 = 칠성예청 2부 : 칠성무와 신통수련
전화 : 010-7387-2833 강주 : 금륜당 화엄

금륜당 화엄 합장

탄신 100주년 청화 대종사 '염불선' 조명된다



벽산무주회 · 청화사상연구회
11월 30일 무안군 혜운사서
탄신 100주년 학술대회 개최
청화 대종사 기념관 첫 행사
12월 1일엔 추모다례재 봉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염불선을 주창하며 중생들을 제도했던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 청화 대종사〈1923~2003, 사진〉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벽산무주회(의장 도웅)와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남 무안군 혜운사에서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및 열반 20주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청화 대종사가 고향 전남 무안에 세운 첫 사찰인 혜운사에 조성된 '청화 대종사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여서 의미를 더한다. 청화대종사성역화기념사업회(회장 혜용)가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조성한 '청화 대종사 기념관'은 대종사의 유묵과 유품, 기록물 등을 수장 · 전시하는 전시관과 명상수련관, 요사채(숙박동), 종각 등으로 구성됐다.

'염불선의 성립과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의 '선수련과 인간실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청화대종사 행장(강행원 화백)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정중 무상을 중심으로 고찰(법상 스님, 중앙승가대) △인도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성립과 계승-〈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고찰(조준호,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성륜사 주지 대주 스님, 김용남 前성균관대교수, 김치온 진각대 교수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학술세미나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청화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도 봉행된다.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 재단 이사장 명원 스님(서울 광륜사 주지)은 "청화 대종사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 법(法)이 경전과 조사어록에 근거하고 한 치도 벗어남이 없기 때문"이라며 "염불선 역시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재 대중들에게 맞는 수행법이기에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는 올해는 '청화 대종사 기념관'이 완공돼 본격적인 선양 사업이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하다"며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화대종사성역화기념사업회장 혜용 스님(혜운사 주지)은 "청화 대종사의 유지와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성역화 불사의 중심인 '청화 대종사 기념관'이 완공돼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청화 대종사의 고향이 무안을 중심으로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화 대종사는 1923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태어났다.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대흥사와 혜운사, 칠장사 등서 수행정진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승으로 엄정한 계율 준수와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대종사는 40여 년 동안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실천했고 하루 한 끼만 식사하는 일일일식(一日一食)을 지켰다. 1985년부터 3년간은 묵언수행하기도 했다. 2003년 곡성 성륜사에서 법납 56세 세납 81세로 원적에 들었다.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웹툰으로 만난다

11월 13일부터 총 15회 연재돼
유응오 불자 소설가 스토리 맡아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운암 김성숙 선생의 불교 행적을 웹툰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선양단체인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불교 유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불교를 어떻게 입문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명한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을 제작해 11월 13일부터 독립운동가 웹툰 플랫폼 '독립닷컴'에서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태허'는 운암 김성숙 선생의 법명으로, 1916년 용문사로 출가해 사문이 됐다.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홍월초 스님의 권유로 중국으로 망명해 임정의 국무위원을 지냈다.

이번 웹툰은 운암 김성숙 선생을 다룬 두 번째 웹툰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이 풍곡 신원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봉선사에서 홍월초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만해 한용운 스님, 의암 손병희와 교류한 이야기, 3 · 1운동 당시 남양주 광천시장에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투옥된 이야기 등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첫 연재는 3화 동시 게재됐고 매주 1~2화씩 연재돼 12월 말까지 총 15화가 연재될 예정이다.

웹툰제작에는 본지 필진인 유응오 불자 소설가가 시나리오에 참여했으며, 작화는 정수일 불교만화 작가가 맡았다.

운암김성숙사업회는 "이번 작품은 박제된 독립운동가 이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에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의 창작을 가미했다"며 "독립운동의 산실 봉선사의 스님들과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사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 한 장면.

불자 무용가 안윤지, 치유의 춤 선보인다

11월 26일 부산금정문화회관
故 선운 임이조 10주기 추모



안윤지 무용가가 승무를 선보이고 있다.

안윤지 연지무용단(대표 안윤지)이 故 선운 임이조 10주기를 맞아 정기 공연을 열고 우리 전통춤을 선보인다.

안윤지 연지무용단은 11월 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은빛샘물 소극장에서 '무발현 무휘(舞發現 舞輝)'를 주제로 공연한다. '숨겨져 있던 춤이 드러나고 빛나는 춤'이라는 '무발현 무휘'는 전통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안윤지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안윤지 대표는 "우리 전통춤은 보는 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우리 전통춤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치유를 선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선운 임이조 선생을 추모하는 장이다. 임이조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 조교이며 제97호 살풀이 춤 이수자였다. 인간문화재 이매방의 적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매방에게 사사해 질박한 호남류 춤사위에 창작을 더한 창작무로 유명하다. 이매방 선생의 호남류 춤을 이어 받고 정통성을 유지하며 고유의 맛을 올곧게 살린 이로 평가된다.

안윤지 대표는 선운 임이조춤 보존회 부산지부장을 담당하고 전통춤의 고유의 춤사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승무, 입춤, 한량무, 교방살풀이, 대금독주, 살풀이춤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의 악사 출연진도 화려하다. 악사는 이성준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와 장단을 담당하는 유인상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및 고법 이수자, 아쟁은 이관웅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가 맡는다. 거문고는 이진우, 피리는 이종철, 타악과 구음은 박종훈, 타악 박주흥이 담당한다. 이성준 대금산조 이수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대금 독주곡 '기억'을 초연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창작한 '기억'은 메나리풍의 선율과 진계면조의 짙은 가락으로 구성되어 가을과 어울리는 선율이다.

안윤지 대표는 "춤은 신체를 통한 치유의 언어"라며 "오랜 기간 춤을 추지 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9재 천도재에서 춤을 다시 출 수 있었다. 저의 춤을 보고 싶어하신 아버지를 위해 천도하는 마음으로 살풀이 춤을 추며 저의 마음도 함께 울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춤을 통해 치유의 언어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윤지 대표는 영남대 국악과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이다. 경남무형문화재 제45호 밀양작약산예수재 전수자이며 제6회 법성포단오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 제14회 가무악 고법 연희대제전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연은 오후 5시이며, 전석 무료 초대석이다. (010)7795-66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담 스님 선필,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

故유일봉 선생 유족 기증식

한국 근현대 선지식 중 한 명인 청담 순호 대종사의 선필이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이하 박물관)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청담 대종사 선필 '불(佛)' 현액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되는 청담 대종사의 선필 '불'은 故유일봉 선생이 생전에 스님께 직접 받은 글씨로, 액자로 장황해 거실 중앙에 걸어 놓았던 유물이다. 이 선필은 청담 대종사가 유일봉 선생에게 1969년에 써서 준 것으로 대종사의 선기(禪氣)가 어린 호방한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청담 대종사의 선필 '佛'

지난 2022년 작고한 유일봉 선생은 1968년 1월 춘천방송국 방송과장, 1969년 중앙방송국 대공과장, 1970년 중앙방송국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68년 7월에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의 문화재관리 및 박물관과 종교업무를 인수해 확대할 당시 초대 종무과장에 임명돼 정부의 종교관련 중책을 맡아 정부와 종단의 여러 현안의 가교의 실무를 성실히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담 대종사는 1966년 12월 통합종단의 종정으로 추대됐고, 1968년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던 시기에 한국불교를 대표해 문화공보부와 종교문제를 이끌어 나갔다. 이 당시 초대 종무과장 소임을 맡았던 유일봉 선생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필의 기증자는 유일봉 선생의 아들 유동욱 씨로, 그는 "아버님의 유품 중 불교 관련 유물은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돼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기증의사를 밝혔다. 청담 대종사의 선필과 함께 법안 스님의 새해축하 '연하장'도 기증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0 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0 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5~1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6	요가수트라(아행가요가시리즈8)아행가선생이해설한요가경	B.K.S.아행가/현천	선요가
2	무비스님의반야심경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7	가려엮은아함경(재가자편)	허정 엮음	지혜의나무
3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4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9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발우공양 어디가고 사찰음식만 남았나"



사찰음식은 없다
정산 지음
2만원
인문공간

전국 사찰음식 연구만 50년
'절간 이단아'가 던지는 화두
전통 사라진 현실 개탄하며
올바른 사찰음식 가치 설명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산 스님은…1960년대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사찰음식을 채록해 레시피 노트를 만들었다. 입으로만 전해오던 절간 음식을 처음으로 성문화한 사찰음식 대중화의 개척자다. 1971년 부산일보에 '절 따라 맛 따라', 국제신문에 '산사음식'을 연재하고 일반인 교육도 실시했다.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16세에 범어사로 출가해 명허 스님 밑에서 음식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해인사에서 수행자의 길로 생각하며 사찰음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1981년 '전통음식 발굴 콘테스트'(중앙일보사 · TBC 공동 주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한국 사찰 음식〉 〈북한 사찰 음식〉 〈눈으로 먹는 절 음식〉 등 단행본을 출간했다. 현재 서울 인사동에서 사찰음식 전문점 '산촌'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사찰음식. 오랜 시간이 걸려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이 생겨났고, 몇몇 사찰은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이름을 떨친다. 주요 해외인사들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대접하거나 한국불교계가 해외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웰빙 열풍을 등에 업고 일부 스님들에 의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사찰음식. 하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暗)도 있는 법. 사찰음식의 이런 대중화 흐름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에 빗대면 사찰음식문화는 맛과 모양 등 '음식'에 집착하는 일이 되고, 남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인해 '고급 채식요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저 수행자가 청빈함을 지키며 공양하던 '절밥'이 과하게 포장됐다는 성찰도 있었다.

〈사찰음식은 없다〉 저자 정산 스님은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음식문화를 논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과연 지금의 사찰음식문화가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전통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팔순을 앞둔 정산 스님은 사찰음식 연구에 평생을 바쳤기에 가능한 사자후다.

이처럼 사찰음식 전문가인 정산 스님이 지금의 사찰음식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정산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의 식문화 중 핵심은 발우공양이다. 사찰음식에 개별적인 메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정신이 발우공양에 집약돼 있음에도 사찰의 후원은 공양간으로 표현되고, 공양간은 또 식당과 같은 개념이 자리하면서 발우공양은 점차 사찰 내에서도 멀어졌다.

정산 스님은 이 같은 현상이 출가자의 나태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사시에 예불을 올리고 마지를 나눠 먹는 전통은 전 세계의 불교가 공히 지켜야 하는 문화임에도 점심 공양의 거룩함을 잊은 현실에 개탄한다. 더불어 각 교구본사마다 가지고 있던 후원의 옛 전통을 되살려야 지금의 획일화된 사찰음식문화를 비로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산 스님이 꼽은 가장 비불교적인 사찰음식의 조리법은 '채수'다. 맛을 더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가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스님은 경험을 토대로 "내가 아는 한 그 어떤 절에서도 채수라는 건 쓰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맛은 출가자로서 멀리해야 할 대상이기에.

"재가자는 맛있는 음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절집처럼 순수하고 담백한 음식을 강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네를 위해 채수라는 걸 쓰는 방편을 소개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원래 사찰음식은 채수를 쓰지 않는다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각인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지금처럼 사찰 음식을 만들 때는 채수를 쓰는 게 상식인 것처럼 인지하게끔 해서는 안 됐다. 단언컨대, 이건 사찰음식이 아니다." –p.201 '전통 혹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책은 사찰음식을 바라보는 정산 스님의 견해뿐만 아니라 출가부터 행자시절을 거치며 사찰음식 연구에 천착하며 겪게 된 일화도 담고 있다. 특히 금강산과 묘향산 등지를 다니며 수행한 명허 스님에게 북한의 사찰음식을 공부하고 2007년 남북 화해 무드에 방문하게 된 북한 이야기는 정산 스님만이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콘텐츠다. 또 책 말미에는 스님이 직접 전국사찰에서 배운 사찰별 음식의 간단한 레시피도 정리돼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발우공양이 빠진 채로 '공양을 한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발우공양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해외에도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정작 그 정신을 이어온 사찰 안에서 발우공양의 전통은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p.41

북쪽에서도 이미 예전처럼 후원의 문화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찰의 음식 자료는 그 가치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때 나의 자료는 북쪽의 사찰음식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p.106

사찰음식이라는,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에 얼마나 깊은 깊이가 녹아 있는가.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것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p.209

요가 기원부터 신체 영향까지 '요가 A to Z'를 담아낸 역작



요가 인문학 · 요가 해부학
이정수 · 이동환 지음
판미동
각권 2만7000원

요가는 인도의 정신수련법으로 그 역사가 기원전으로 올라갈 정도로 유구하다. 그러기에 힌두교를 비롯해 불교, 자이나교 등이 요가 수행의 영향을 받았다.

요가 입문자부터 지도자까지 꼭 알아야 할 인문학적 지식과 해부학적 원리를 체계화해 정리한 〈요가 인문학〉, 〈요가 해부학〉이 출간됐다.

하타요가의 거장 아엥가와 불교 명상의 대가 고엥까의 제자로 30년간 함께 수련해 온 도반이자 부부인 이정수 · 이동환 저자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요가 수련의 모든 것을 〈요가 인문학〉, 〈요가 해부학〉 두 권에 나눠 담았다.

〈요가 인문학〉이 요가의 역사, 철학, 수행법 등 정신 문화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책이라면, 〈요가 해부학〉은 요가의 자세, 동작, 호흡법의 신체 해부생리학적 원리를 밝히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책이다. 인도 뿌네대학교에서 전공한 인도 철학을 바탕으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직접 해석해 요가의 본래 의미에 충실히 다가갔으며(요가 인문학), 요가를 수련하고 지도하며 체득한 신체적 원리를 300장이 넘는 도판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요가 해부학)

〈요가 인문학〉은 〈붸더〉, 〈우뻐니셔드〉, 〈바가왓 기따〉, 〈요가 쑤뜨러〉 등 인도 전통 경전의 내용을 소개하고, 어슈땅거요가와 하타요가, 쌍키여 철학과 붸단떠 철학, 아유르붸더, 딴뜨리즘, 힌두교 등의 주요 개념들을 인도 사상의 흐름 속에서 실천 수행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요가와 명상의 생리학적 · 심리 치료적 이해를 돕는 한편, 해탈로 향하는 세 가지 길, 지혜의 길(냐너요가), 헌신의 길(박띠요가), 행위의 길(까르머요가)의 의미를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요가의 궁극적 가치를 밝힌다.

특히, 9장 '요가 명상과 불교 명상의 이해'에서는 요가명상을 불교 명상과 비교하면서 명상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요가 해부학〉은 이동환 저자가 우리 몸의 골격 구조, 근육 운동, 신경과 장기의 작동 원리 등 동서고금의 해부생리학 지식을 총망라해 정리한 책이다. 300장이 넘는 도판과 해부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요가 아써너를 직관적이면서도 구체적 ·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부 '해부학적 원리'에서는 자세와 움직임을 만드는 골격계와 근육계를 살펴보고, 호흡기계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요가의 호흡법을 알아본다. 2부 '생리학적 원리'에서는 요가 전통에서 내려오는 신비 생리학을 소개하고, 현대 의학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를 다룬다. 요가 아써너의 기본 원리를 태권도, 헬스, 수영, 복싱 등 보편적인 운동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왜곡된 체형과 자세의 교정, 부위별 통증과 해소법 등 일상의 움직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른 몸 사용의 지침까지 제시한다.

〈요가 인문학〉과 〈요가 해부학〉은 저자들이 평생을 걸쳐 수련하고 공부해 온 요가의 깊을 느끼게 한다. 저명한 드라마 작가이자 요가 수련자이기도 한 노희경 작가는 이 책들을 두고 "요가에 대한 치열한 열정, 요가를 이어 온 숱한 선지식들에 대한 경외심, 인간의 몸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검증과 이해, 인간 자체에 대한 한없는 존중이 고스란히 정리된 역작"이라며 추천했다. 박찬욱 영화감독도 "요가 지도자도, 수행자도, 나 같은 입문자도 각자의, 그리고 그때그때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읽을 수 있으니 가히 가정 상비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요가 인문학〉, 〈요가 해부학〉은 학문적으로 정통하면서도, 실제로 요가를 가르치고 실천 수행하는 관점에서 복잡한 현대 요가의 체계를 정리해 보려는 담대한 시도다.

신중일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을 볼 수 있다고?
어린이가 자신을 맘껏 표현하는 '무대'가 되어 주는 그림책!



★★★★★
"잊고 있었는데, 우리는 두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보기 드물게 재밌고 지혜로운 책."
- 커커스 리뷰

"책을 펼치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100가지의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는 따스한 시간을 보내시길."
- 북리스트

★★★★★



우리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스무 번째



네 느낌은 어떤 모습이니?
앤디 J. 피자, 소피 밀러 글·그림
김세실 옮김 | 1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든 독후 활동지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우린 사랑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정목 지음
김영사
1만 6800원

따듯해지는 스님의 인생 편지
미움보다 부드러운 사랑할 때
삶은 그 순간 넓고 편안해진다

정각사 주지이자 국내 최초 비구니 DJ로서 따스하고 깊은 음성으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온 정목 스님이 에세이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를 출간했다.

열여섯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해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절, 인생의 스승과 길 위의 인연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온 정목 스님의 삶과 사람 이야기를 담았다. 미운 사람과의 화해, 성숙한 이별의 자세, 타인을 사랑으로 대할수록 스스로 넓고 편해지는 삶에 대한 깨달음까지. 친한 이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게 써 내려간 정목스님의 인생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고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살다 보니 누군가 미워지기도, 험한 세상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지만 정목 스님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을 경험한다”며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큰마음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전한다.

미워하던 한 스님의 고무신만 닦아주지 않고 신경이 쓰여 잠 못 들던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용서를 구해 화해하고 나서야 마음이 활짝 펴졌다는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는 어떠한 조언보다도 마음 깊이 다가오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듭니다.”

정목 스님에게 사랑이란 베푸는 동시에 스스로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며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스님을 어머니처럼 돌보아준 은사 스님, 종교를 넘어서 마음을 나눈 수녀님, 고된 인생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는 모습으로 깨달음을 준 길 위의 스승들까지. 모든 인연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곁을 지켜온 정목 스님의 발자취는 큰 감동을 준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자비는 자비로 이어지는 삶. 악연이라 생각했던 이에 대한 미움은 고마움으로, 욕심은 비움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동안 마음은 어느새 가볍고 행복해진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비심을 배울 기회로 받아들이며 슬픔과 고통을 성숙해지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삶이 내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저자 **정목 스님**은?

포근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를 전하는 우리 시대의 멘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티비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한국방송대상 사회자상과 전국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을 수상했다. 마음공부 전문매체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사랑’을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정각사의 주지로 있다. 저서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꽃도 꽃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결국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요.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81쪽

“타인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는 셈이 됩니다. 그가 나에게 했듯, 똑같은 일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고 있으니까요.” –84쪽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120쪽

“세상엔 서로를 험담하고 괴롭히는 인간관계도 많은데,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149쪽

30년 명상수행가의 수행에세이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은종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1만7000원

30년 동안 명상을 수행한 은종이 지은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는 자신의 수행 경험과 사유를 담아낸 명상 수행 에세이이다.

책은 ‘나는 누군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30년 동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영적 여행길에 올랐다. 호주, 캐나다에서 명상을 연구하고 티베트와 일본, 중국 등에서 불교의 선을 수행하며 비로소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후 명상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며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명상 강의를 통해 아픈 마음을 치유해가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책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에 단호하고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고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음에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저자는 이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자기를 발견해나가고,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풀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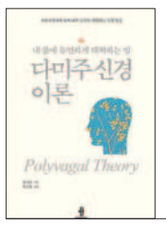
1, 2, 3장에서는 과거와 미래, 현재로 시점을 나눠 삶의 아픔과 상실, 공허함을 겪었던 경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4장에서는 앞의 경험과 자세를 토대로 명상을 통한 삶의 진정한 행복 찾기에 대한 과정을 소개한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의 메시지는 장황하지 않고 짧지만 분명하고, 매우 명확하다. 누구나 삶다가 넘어질 수도, 좌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행복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저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라고 조언한다.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행복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불행에 가까운 무료한 삶으로 빠져들기 쉽다. 마음이 계속 바뀌면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의 몫이 아니고 느끼는 자의 몫이다. 적극적으로 이미 가진 행복을 음미하고, 없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내자. 지금부터 당장 행복하게 살자.” –195쪽

신중일 기자

몸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원

1990년대에 정신의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제창한 ‘다미주신경 이론(Polyvagal Theory)’은 인간의 몸(신경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지를 밝힌 신경과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를 비롯한 각종 정신 건강상의 문제 해결에 두루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의료적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통합 치유 과정에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티븐 포지스 박사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다미주신경 이론을 신체 · 심리 치료 분야로 확장하고 대중화해 온 뎁 다나의 〈다미주신경이론〉은 누구나 쉽게 다미주신경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에서 자신의 신경계를 유연하게 다루는 법을 안내하는 실용서다.

이 책은 먼저 자율신경계의 발달 과정, 구성 요소, 작동 원리를 소개하고, 그것이 인간의 생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배 쪽 미주신경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상태로 나 · 타인 · 세상 ·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나아가 신경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지 친절하게 조언한다.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과학이론을 일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책은 다미주신경 이론에 관한 최고의 교양서이자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신경 연습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벅찬 상황에서도 몸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준다. 신경계를 조율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신중일 기자

깨어 있는 삶을 사는 법

현존명상
레너드 제이콥슨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1만 4000원

〈현존 명상〉은 호주 출신의 명상 지도자 레너드 제이콥슨의 ‘현존’ 3부작 중 〈고요한 현존〉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저자는 온갖 괴로움과 불만족의 원인에 빠지지 않고, ‘지금의 세계’에 깊이 현존하면서 참된 자기로 깨어나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저자는 ‘현존’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깨어나는 핵심 열쇠임을 강조한다.

책에는 ‘마음의 프로그래밍’ ‘깨어남의 두 스텝’ ‘현존 명상’ ‘에고의 수법들’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딜레마’ ‘통제의 패턴’ ‘화 명상’ ‘내면아이 명상’ ‘땅 위의 천국’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2001년에 발행된 〈지금 이 순간〉의 원서 개정판을 다시 번역하고 제목을 바꿔 새롭게 펴내는 책이다. 원서 개정판은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고, 글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편집에도 변화를 줬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2 보석을 찾는 이 1

▶한줄 요약
이석원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 속에는 이석원 자신의 고뇌와 방황이 적혀있었다. 글을 읽고 난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이 있을지도 모르는 갈루촌 한센병 환자촌으로 향한다.



“칼을 찾아라…그럼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는 전생에도 부부였을 거예요. 일주씨가 그리는 그림 속에 저를 넣어 주세요.

-그렇구나. 너를 그리기 위해 내가 이 길로 들어섰구나.

-내생에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대학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녀마저도 그림쟁이에게는 시집보낼 수 없다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내 품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림을 그리면 그녀의 얼굴이 그림 속에 떠올랐다. 그것을 칼로 찢었다. 찢고 또 찢었다. 그러나 그녀의 잔영은 지울 길이 없었다. 절로 절로 떠돌았다. 그리고 내 화폭 속에 떠오르는 그녀가 곧 부처라는 것을 알았다. 자연히 본격적으로 금어 공부하기 시작됐다. 당대의 금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와 한 방에서 생활하며 우리는 그림을 그려 나갔다. 새벽이면 아버지가 들어와 밤새운 작업을 발길로 내질렀다.

-부처는 계집이다. 너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것. 그래서 죽여야 한다.

부처를 그리면서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살아난다니. 어떻게 부처를 죽이고 부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산을 내려가기 전날 밤 나는 보았다. 시퍼런 삭도를 들고 공양각으로 소리 없이 들어서는 그를.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고 보라지. 당신과 나의 그림이 뭐가 다른가.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림 앞에서 칼을 들고 몸을 떨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점차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가 칼을 들고 석상처럼 굳으면 굳어갈수록 나는 부르짖었다. 찢어요! 찢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서고 있었다. 찢으면 만용의 함정에 빠지고, 찢을 수 없다면 아직도 무지하다는 지독한 양면도법을 결국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뒤를 말없이 따라 산문을 나섰을 때 보았다. 아버지가 산모퉁이에서 서 있는 모습을.

오늘도 아버지가 평생을 그려 오던 그림 앞으로 나아가 본다. 아버지의 그림은 내가 넘보기에 너무나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그림들. 그도 인간이고 보면 그림을 이루면서 이만한 사유, 이만한 번뇌, 이만한 고뇌가 없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림이 본질 그 자체일까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세인들이 하는 예술이라는 작업이 인공의 자연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창조 과정에 있어 지성이나 사고, 사리, 논리, 탐미적인 어떤 인공성의 미업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다. 무위자연의 상태. 그렇지 않고는 신앙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지성에 의한 분별 작용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자동 현상 그 자체를 얻고자 했다. 그것이 절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절대를 얻으려면 절대를 쳐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절대를 쳐버린 절대. 분명히 그것은 순수 위에 있는 그 무엇이다. 그렇기에 나는 불안하다. 내 그림이 가지는 불완전성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림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아, 저 저잣거리의 실상에 비한다면 내가 그려내는 그림은 얼마나 공허한가. 그렇다. 그림이나 그리던 저잣거리는 나에게 있어 천국은 아니었다. 세상은 그대로 지옥이었고 그 지옥 속을 헤매면서 만행과 고행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의 얼굴 하나 제대로 그릴 수 없으면서 걸식하기가 무서웠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유 없이 그들의 주머니를 털 수는 없었다. 그들의 시주물로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나는 배고픈 이들을 위해 불화를 내다 팔았다. 부처는 확실히 구원자였다. 사원의 종(鐘)이 갚아나가면 그것이라도 떼다 팔았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먼 나의 개안은 잠들어 있던 또 하나의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나는 저잣거리를 헤매면서 점차 내 속으로 들어와 내가 되어 버린 종을 치기 시작했다. 노동일을 해서 쌀을 사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밥을 해 먹였다. 나환자촌에 들어가 그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아버지가 부처의 얼굴을 그리는 사이 나는 구원자적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었다. 구원자적 삶을 살기 위해 그림을 버린다는 사실. 그림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서 순일무잡한 절대의 경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언제나 나를 사로잡았다. 나의 구원자적 삶은 과연 진실한가? 허위와 거짓의 맥박을 찢어 나가던 아버지. 그렇게 나는 진실하게 구원자적 삶을 통해서 절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림 수행과 현실적 수행. 내가 다시 그림에 미쳐버린다면 저기 저 고통 받고 신음하는 중생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그림을 그려 부처를 보겠다면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저기 그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인가? 나의 업장.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그림이 얼마만큼 진실할 것인가? 사고의 구술에 지나지 않는 그림. 그림을 통해 정말 절대를 볼 수 있다고? 허위와 위선과 위악에 찬 사유. 그 사유를 통해 절대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문제는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면 중생의 시주 밥이나 걷어 먹으며 거짓말을 일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되지도 않은 사고의 구술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척박한 세



삽화 · 김상규

상에서 공양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림, 그림을 그리고 싶다. 공양적 삶이 성취되지 않는 한 내가 그리고 있었던 삶은 허위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림,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아 쉽지 않다. 두 세계를 모두 안을 수는 없는 것이냐? 배고픈 사람들에게 공양하면서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내가 구원자적 진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구원자적 삶이 이상이라면 결코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절대평등이다. 구원도 없고 이상도 없는 그 경지에 가 있지 않고는 나의 구원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아버지의 스승은 철저한 이원론자였다. 터무니없었다. 세상에! 영혼이 어디 있고 윤회가 어디 있는가. 귀신이 어디 있고 혼령이 어디 있고 육도가 어디 있는가. 그토록 수행을 오래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데 그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부처님도 윤회를 설파하면서도 그것이 방편설교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기설의 무아. 무아가 무엇인가. 내가 없다는 사상이다. 내가 없다면 영혼이 없다는 말이다. 그럼 윤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없는데 윤회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지금도 꿈속에서 아버지는 내게 소리친다. ‘아디카야의 칼을 찾아라. 그럼 부처의 대답이 옳은지 나의 대답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칼이 대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까?

그의 글은 여기서 끊어져 있었다.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자기 감상이 강한 글이었다. 나는 오오스마 기자에게 글을 넘기고 막연한 심정으로 방을 나왔다.

정원으로 나서자 밤바람이 찼다. 이상스러운 비애가 가슴 속에서 스멀스멀 괴어올랐다. 저 글이 이석원의 글이 틀림없다면 현실적 삶을 지향하며 한 자 한 자 글을 쓰고 있었을 젊은 사내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드높은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절망했을 사내. 어떻게 저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디카야의 눈물1

-일어나십시오!

누군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아마도 그의 글에서 온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심 작가였다. 눈을 뜨자 허겁지겁 원주스님 쪽으로 달려가는 오오스마 기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원주스님이 오오스마 기자를 향해 웃었다. 오오스마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그럼 스님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서두르시오?

원주스님이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방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한 번 가보려고요.

오오스마 기자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렇게 말했다.

-먼 길 오셨는데 공양이라도 하고 갈 일이지.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상심이랄 거야 뭐 있겠소. 명과 인연이 그만하니 그렇게 가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서 가 보시오.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신 갈루촌이 여기서 먼가요?

-이 길로 곧장 내려가시오. 멜레오드간지 쪽으로 가다 보면 갈루촌이라는 데가 나올 것이오.

-고맙습니다.

-그럼 잘 가시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오.

앞서 쌩하게 나가는 오오스마 기자를 보다 말고 나는 뒤늦게 원주스님께 인사를 했다.

네 사람은 부지런히 걸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어제 그 글을 다 읽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길이 눈에 익어서인지 올라올 때와는 달리 수월했다.

-그런데 원주스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이 가까워져서야 내가 물었다.

-일은 무슨. 아침에 원주스님에게 혹시 이석원이 산을 내려가 어딜 잘 들르는지 모르겠느냐고 다그쳤더니 한 신자의 말에 의하면 그를 갈루촌에서 보았다고 하더랍니다.

-갈루촌?

-그러니까 이석원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 말인가요?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거기 가면 나환자촌이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죽어가면서 자기 장기를 모두 나병 환자들에게 주고 갔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나요?

-나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에게 장기기증을 했다는 말인가요?

-아마도 그런 모양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모양인데 죽어가면서도 자기 장기를 그들에게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문이 미담이 되어 흘러 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모양인데 우연히 그곳에서 어떤 신자가 그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한센병 환자촌에서 이석원도 봉사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모른다고 시침을 떼던 스님이 어떻게 마음을 연 것인지?〈계속〉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21 나를 바로 보는 5분 명상 – "나바오 명상"



▶한줄 요약
참선 명상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발견이자 빛나는 선물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알콜이나 약물, 마약과 같은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면 중독이 되거나 내 밖으로 계속 의지해야 하지만, 명상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는 길이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규칙적인 '5분 명상'…나를 삼매로 이끈다

오늘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절실한 현대 생활인에게 참선 명상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루 5분 참선 명상하는 '나바오 명상(나를 바로 보는 5분 명상)' 을 소개한다.

명상, 하루 5분으로 시작하기

이제 참선 명상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종교를 초월하여 참선 명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참선 명상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 바쁜 일상생활과 스마트폰과 동영상, TV, 게임 등 인터넷과 미디어의 자극에 익숙한 현대인이 고요히 내면을 바라보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더라도 스트레스와 짜증, 화, 우울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려면 참선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선 명상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발견이자 빛나는 선물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알콜이나 약물, 마약과 같은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면 중독이 되거나 내 밖으로 계속 의지해야 하지만, 명상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는 길이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참선 명상은 최고의 자기 계발의 길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문제는 참선 명상에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는 말이 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루 단 5분 명상을 시작해보자. 하루 1440분 중에서 5분이다. 큰 부담이 없다. 누구든지 마음을 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치하고 세수하는 시간이다.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5분 명상을 시작해보자.

적명스님이 제시한 하루 5분 규칙적으로 좌선하기

여기서 나의 하루 5분 명상 입문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가까운 절에서 겨울 방학을 보낼 때 이웃 동네 대학생 형님(지금은 과학대중화로 유명한 박문호 박사)으로부터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깨달아 부처되는 길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인연으로 종립 동국대에 들어가 불교 공부와 신행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여 불교의 진리에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조계종 총무원에 들어가 불교를 위해 일하다가 종단 내분과 갈등을 보며 회의가 들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가르쳤는데 어째서 우리 조계종단은 이렇게 싸우는가? 하는 생각에 다른 진로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보고 답이 없으면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가까운 스님에게 산중 선지식을 여럿 추천 받았는데, 태백산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과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적명스님이었다. 그 외 여러 스님들을 추천 받았는데, 고우스님이 1순위였다. 고우스님을 찾아뵈니 첫눈에 '아, 세상에 도인이 있다더니 이런 분을 도인이라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다른 분을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봉화 태백산 각화사 서암으로 자주 가서 법문을 들으니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과 禪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특히 고우스님께서 추천하신 "성철스님 『백일법문』 상권 근본불교사상편을 반복해서 읽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팔만대장경을 회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불교가 이치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확연했다. 그리하여 다시 참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났다. 그때 마침 고우스님께서 적명스님을 만나 보라 하시어 은해사 기기암 선원으로 적명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물었다.



재가 생활인에게 매일 5분 참선법을 알려주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하루 1440분 중 5분은 짧아도
우울 긍정으로 돌리는 빠른 길
출퇴근 대중교통 안에서도 가능
마음 한곳 모아 망상 비우면 돼



하루 5분 좌선법을 알려주신 봉암사 적명 스님과 필자.

"스님, 평생 참선해오셨으니 저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참선을 하고 싶은데 좋은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 적명스님께서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참선의 길에 좋은 비법이 있다면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숱하게 도인이 나와야 할텐데 아직 깨달은 도인이 많지 않은 걸보니 그런 왕도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신에 내가 한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좌선을 해보세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5분 시간을 낼 수 있을 겁니다. 5분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참선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 5분만이라도 좌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5분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하루 중 자기를 돌아보기 가장 좋은 시간에 5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5분씩 규칙적으로 좌선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고 매일 5분씩 좌선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삼매 체험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중단하지만 않으면 그 삼매 체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아 참선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들어 시간을 조금씩 더 늘여나가 마침내 공부 힘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참선으로 견성하여 부처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명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매일 5분 좌선하기를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를 바꾼 하루 5분 참선 명상

하루 중 어느 때에 5분 참선을 할까? 당시에 마음이 힘들어 조계사 대웅전에서 매일 108배를 하고 출근한지 1년 가까이 되었다. 조계사 법당에서 108배를 한 뒤 땀을 좀 식히면서 5분 좌선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월요일부터 그렇게 했다.

그렇게 조계사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는 방석에 앉아 5분 동안 화두 참선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아지고 화두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5분 앉는 것이니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렇게 5분 참선을 시작한지 며칠 지났을 때 하루는 5분 참선을 하던 중 찰나 간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삼매 체험을 하게 되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삼매를 체험한 것은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 무릎을 탁치고는 "이래서 스님들이 화두 참선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5분 참선을 시작해서 5일 만에 짧은 삼매 체험을 하니 그때부터 참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배가되었고, 5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108배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으로 절을 중단하고 좌선 시간을 15분으로 늘였다. 그 뒤로 마음이 편안해지며 스트레스와 짜증, 화가 줄어들었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 5분 명상으로 시작하기

참선 명상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하루 5분씩 정해놓은 시간에 시작해보기를 권한다. 하루 1440분 중 5분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막상 처음 참선 명상을 시작할 때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조 불안과 스트레스, 짜증, 화,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돌리고 밝고 편안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참선 명상이 가장 좋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지혜를 밝히는데 참선 명상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루 5분 명상은 별도의 비용이나 장소도 필요 없다. 그냥 집이나 사무실도 좋다. 출퇴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가능하다. 좌선하는 가부좌 자세가 가장 좋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다. 오직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잡념과 망상을 비우면 된다. 하루 중 가장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두고 5분 동안 호흡이나 화두에 집중하면 된다.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해서 잡념,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며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하루 5분 명상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면 어느 날 문득 삼매를 체험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스스로 시간을 늘려나가서 더 좋은 체험을 계속해서 나날이 좋은날, 매일매일 좋은날이 될 것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1458호에 게재된 원고가 1438호 원고와 중복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2018년 (15회)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25)
산지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22 논산 쌍계사 대웅전 닫집

▶ 한줄 요약
닫집은 집 안에 따로 지은 집, '집 속의 집'이라는 의미다. 집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부처께서 상주 설법하시는 불국정토의 궁전을 구현한 것이다.



한 법당에 '불국정토 궁전' 셋 장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천정과 닫집.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불상과 닫집.


논산 쌍계사 대웅전 '칠보궁' 닫집 장엄.

닫집, 집 속의 집

한국산사 법당은 삼단으로 구성한다. 한 법당에 의식단을 상단, 중단, 하단의 세 곳에 마련해 둔다. 상단은 정면 중앙의 의식단으로 불상을 모신다. 불상 뒤엔 후불벽을 세워 영산회상도와 같은 후불불화를 건다. 중단은 향우측인 동쪽 의식단이다. 호법신중을 봉안한다. 하단은 향좌측인 서쪽 의식단으로 영가 위패를 올려둔다. 법당 상단에 최고 최선의 불교장엄이 결집한다. 불상과 불화, 불단, 닫집, 단청 등 법당장엄의 핵심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그곳에 당대 제일의 예술역량이 결합하여 종교예술의 꽃을 피운다. 예술은 종교적 교의와 결합하여 물성을 초월한 숭고함으로 현현한다. 장식이라는 물질성을 여의고 고차원적이며 정신적인 장엄세계로 승화된다.

한국산사 법당의 상단 장엄에서 가장 독특한 구성은 법당 내부에 또 하나의 건축을 지은 중중(重重)의 구조일 것이다. '닫집'이라 부르는 한국불교 특유의 법당장엄이 그것이다. 닫집의 '닫'에 대해 〈명문 국어사전〉에서는 부사 '따로'의 옛말로 설명한다. 즉 닫집은 집 안에 따로 지은 집, '집 속의 집'이라는 의미다. 집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부처께서 상주 설법하시는 불국정토의 궁전을 구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닫집은 건축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법당장엄으로서 목공예와 밀접하다. 목조건축이면서 목공예다. 엄밀하게는 실용성보다는 종교교의로 해석한 장엄예술 성격이 더 강하다. 건축은 대목의 몫이다. 목공예는 소목이 맡는다. 닫집 제작은 소목이 담당한다. 부재 하나 하나를 섬세하게 만들고 매끄럽게 다듬은 후 조립해서 완성하는 대단히 세밀한 공정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닫집은 소목장인의 섬세함, 세밀함, 엄정함, 그리고 사려 깊은 균형감각의 통찰 속에서 완성된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영주 부석사 대웅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의 닫집은 한국산사 닫집의 명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닫집은 한국산사 닫집의 미학과 규범을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손색이 없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18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2층의 중층건물이었다. 1736년에 큰 화재로 절 전체가 소실됐다. 〈은진쌍계사중창기〉 상량문에 의하면 1738년에 중건하면서 현재와 같이 단층 건물로 세웠다고 한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평면 칸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높이만 낮춘 것이다. 중층 건물을 단층으로 낮춰 중건한 이유는 고주로 세울만한 목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듯이 쌍계사 건축 기둥 곳곳엔 서로 다른 목재를 연결한 나비장이음을 볼 수 있다.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등도 원래 중층건물이었지만 중건 과정에서 단층으로 바꿨다. 그 같은 사례들은 목재 수급의 어려움에 처한 당시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중층 닫집 3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쌍계사 대웅전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 향좌측부터 아미타불-석가모니불-약사여래 세 분이다. 세 불상 저마다 독립적인 닫집을 갖췄다. 한 법당에 3기의 닫집을 조성한 사례는 희귀하다. 불전건물 한 곳에 3기의 전통 닫집을 갖춘 곳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등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이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 닫집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고, 또 불교장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중층 아자형 대형닫집 3기를 한 법당에 장엄한 사실. 둘째는 닫집 3기 저마다 편액을 달아 닫집의 본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불상과 닫집 편액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닫집 편액은 향좌측부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순서로 부착했다. 닫집 편액에 '적멸궁', '칠보궁', '만월궁'의 이름을 달고 있다. 닫집은 성스러운 부처님이 상주 설법하시는 궁전으로 제작된 법당 내부의 건축이다. 닫집이 궁전이라는 사실은 닫집에 단 편액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궁전은 부처님께서 숱한 겁 동안 닦아온 대원과 공덕장엄으로 이룬 불국정토를 상징한다. 불상과

닫집 본질, 부처 계신 불국토 궁전
닫집에 내건 공통 편액은 '적멸궁'
폭 3.8m 중층닫집에 10출목 쌓아
붉은 화염문에 '卍', 범자 '옴' 심어

닫집 궁전은 자연스럽게 아미타불-칠보궁, 석가모니불-적멸궁, 약사여래-만월궁으로 배대되기 마련이다. 아미타불의 궁전은 왜 '칠보궁'인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에는 아미타불께서 48대원으로 성취한 극락정토에는 칠보 연못과 칠보 나무, 칠보 누각 등으로 장엄되어 있다고 묘사한다. 경전의 내용은 아미타불과 칠보궁 닫집 편액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석가모니불의 무상정등각은 '적멸(보)궁'과 상통하고, 12대원으로 성취한 동방유리광 만월세계의 약사여래는 '만월궁'과 유기적 일체를 이룬다. 하나의 법당에 가장 대중적인 불교정토인 아미타 극락세계, 석가모니 해인삼매 화엄세계, 약사여래 유리광세계가 한꺼번에 극적으로 펼쳐있는 것이다.

다른 법당의 닫집에서도 편액을 달고 있을까? 있다면 어떤 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할까? 편액을 달고 있는 닫집은 드물다. 남북을 통틀어 너댓 곳에서, 또 옛 사진 속에서 드문드문 만날 수 있다. 몇 곳의 닫집에 부착한 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중층 아자형 닫집 3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중층 아자형 닫집 1기): 내원궁(상)-적멸궁(하)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1층 정자형 닫집 1기): 적멸궁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중층 정자형 닫집 1기): 적멸궁(세로 편액)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3층 중층의 아자형 닫집 3기): 극락궁-적멸궁-만월궁

△함경도 용흥사 대웅전 닫집(중층 아자형 닫집 1기): 적멸궁(상)-보광전(하)

어느 곳의 닫집이든 '적멸궁' 편액은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왜 '적멸'로 통일되는 것일까? 적멸은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불교 궁극의 청정 세계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청정하고 고요한 열반적정의 세계, 그것이 적멸이다. 닫집은 적멸궁으로 통일된다.

입체로 구현한 또 하나의 경전

쌍계사 대웅전 내부 높이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약 7.5m에 이른다. 닫집의 크기는 어간의 적멸궁 가로 폭이 3.8m, 좌우 협간의 칠보궁과 만월궁의 폭은 3.6m 정도다. 세 닫집 높이는 허공에 떠 있는 기둥인 허주에서 최상단까지 대략 2.4m로 비슷하고, 세로도 셋 모두 2.1m 길이로 거의 같다. 닫집의 구조는 중층다실 구조이다. 중층의 1, 2층은 같은 형태다. 각 층의 닫집 안쪽(뒤쪽)에 5칸이 있다. 5칸 중 중앙부 3칸을 앞으로 돌출시키고, 그 가운데 1칸을 다시 앞으로 돌출시켜 칸칸이 좌우 날개 펴듯 펼친 모습이다. 칸칸칸, 중중중 구조다. 게다가 공포를 촘촘한 다포식으로 빈틈없이 층층이 쌓아 올린다. 쌓아 올린 공포의 출목 수는 1층이 외10출목이고, 2층이 외8출목이다. 주두와 공포 살미 단면 등에는 금박을 입혔다. 닫집 전체에 입힌 석간주 안료의 붉은색에 올린 금빛이 선연하고 찬란하다. 칠보 궁궐의 오색찬란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장엄 구성들은 본질적으로 경전 내용의 구현에 있다. 극락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아미타경〉이나 80권 본 〈화엄경〉 1권 '제1 세주묘엄품'에서 부처님이 거주하고 계신 궁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과 겹친다. 닫집도 불단과 함께 경전 내용을 구상적 조형으로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전이다.

쌍계사 대웅전 닫집에서 만나는 특별한 장식으론 닫집 추녀 끝자락에 부착한 화염문 조각을 들 수 있다. 화염문 조각은 사천왕상 보관 장식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닫집에서는 의외다. 붉은 화염문 조각에는 원형을 마련한 후 '옴', '니' 등 범자 종자자(種子字)와 부처님의 상징 문자인 '卍'자를 적어 닫집의 청정 불국정토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범자와 결합한 붉은 화염문 조각은 마장으로부터 불국정토를 수호하는 내밀하면서도 강력한 결계장치로서도 유용한 것이다. 화염문 속 범자엔 신성한 다라니의 내밀한 힘이 실려 있다.

닫집의 장엄 모티프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용, 연꽃, 구름, 선학, 극락조(봉황) 등 공통 소재들을 사용한다. 적멸궁이나 칠보궁, 만월궁에 사용한 소재도 동일하다. 또한 닫집 칸칸 네 모서리에서 허공에 내린 기둥(허주) 개수도 같다. 각 궁전마다 10개의 내림기둥을 내렸다. 8개는 공중에 떠 있는 허주이고, 협간 모서리에서 내린 2개는 불단 윗면까지 길게 내려 닫집의 무게를 내려받는 역학 기둥으로 활용했다. 모든 내림기둥에는 붉은 촉이 나오는 넝쿨 문양을 장식했다. 넝쿨은 대자대비의 생명에너지를 상징한다. 내림기둥 끝에 연꽃 장식을 달았다. 봉우리도 있고, 여러 씨앗이 박힌 연자방을 갖춘 것도 있다. 만개한 연꽃은 적멸궁 닫집의 허주 네 곳에만 조영해서 석가모니불의 중심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닫집 장엄의 중심 소재는 단연 '용'이다. 특히 중앙의 적멸궁 닫집에는 특별히 아홉 마리 용을 조영했다. 부처님 탄생 때 구룡이 천상의 물을 뿜어 부처님의 몸을 씻어준 '구룡관욕(九龍灌浴)' 장면과 겹친다. 다른 두 닫집엔 한 마리 용을 조각해서 비교된다. 용이 박차고 나온 구름 조형의 표현도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 구름이 아니라 하늘 꽃 같다. 찬찬히 살펴보면 구름은 여의두문으로 조합했다. 길상해운의 바다다. 〈화엄경〉 '세주묘엄품'에서 묘사하고 있다. "여래의 거처하시는 궁전과 누각은 넓고 아름답고 엄숙하고 화려한 것이 시방에 가득하여 가지각색 마니보배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훌륭한 꽃으로 장식하였고, 모든 장엄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구름같이 흘러나왔다." 천상에 극락조와 선학이 날개를 펼치며 비행한다. 정토의 하늘엔 걸림이 없으니 만리무운만리천(萬里無雲萬里天)이다. 〈사진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인문학살롱

㉒ 자연의 시계와 〈숫타니파타〉



▶ **박순태 작가**는 영남알프스 산자락 울산 울주에서 태어났다. 2015년 〈동리목월〉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제4회 수필미학 문학상, 농어촌 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수필집 〈사이시옷〉이 있다. 울산광고 대표로 활동 중이다.

사시사철 초목이 보이는 순환의 진리

내리쬐는 햇볕을 삼키며 식물은 거룩한 생식(生殖) 활동에 여념이 없다. 육신을 공양하려 땅에 뿌리내린 녀석들의 잔치를 보자니 가관이다.

다랑논 몇 뙈기를 묵힌 지 석삼년째다. 초목이 요동을 친다. 밀치고 쥐어박고 비틀고 휘감는다. 온갖 씨앗이 날아들어 싹을 틔워 서로 지지고 볶으며 세를 과시하더니 급기야 사투까지 벌인다. 공격은 거침없고 방어는 빈틈을 주지 않는다. 누가 자연을 두고 자연스럽다고 찬양하는가. 잡초 무성한 진답(陳畓)에 마음이 마구 뒹군다. 춘분이 지나자 햇볕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강도가 점점 높아간다. 하늘의 심부름꾼 햇살은 녹색식물의 양식인 열기를 안고 내려와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먹이 삼키는 잎의 동작이 커가고, 몸집 불리기에 가속도가 붙는다. 찔레순이며 칡덩굴은 머리를 치켜들고 자기들 세상인 양 봄바람에 춤을 춘다. 새순이 며칠 새 몇 뼘씩이나 뻗어 올랐다.

눈을 주시하고 귀를 기울인다. 잎을 입인 양 활짝 벌려 햇볕을 받아 오물거린다. 아까시 나무(콩과에 속한 낙엽목)같이 잎이 작은 녀석은 아기 입으로 빛을 흡입하고, 오동나무처럼 잎이 큰 녀석은 하마 입으로 빛을 삼킨다. 몸집을 키운 녀석들은 땅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워 자신의 공간을 슬며시 넓힌다. 이를 악물고 치고받는 동작이 눈에 들어오고, 죽기 살기로 맞서는 악다구니는 바람을 타고 귀를 때린다. 동물만 영역 확보에 광분하는 줄 알았는데 식물도 땅따먹기에 혈안이다.

첫해 봄이었다. 잡초들이 너 나 가리지 않고 목을 빼 올리면서 키재기에 나섰다. 처음엔 같은 종끼리 경쟁하느라 연약하고, 성깔 마르고, 인내심 부족한 녀석들은 하나둘 스르르 엎어졌다. 일찍 꽃피워 열매 맺은 종족은 씨가 탱글탱글해지자 가쁜 숨으로 흐느적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려면 아직 멀건만 개밀, 뚝새풀, 포아풀 같은 녀석들은 씨앗이 여물자 속전속결로 한 살이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초여름이 다가오자 다른 종들끼리 사생결단이 시작되었다. 쑥을 비롯해 명아주며 개망초며 쑥부쟁이, 쇠비름, 여뀌 등속의 쌍떡잎 무리에 바랭이와 강아지풀 같은 외떡잎도 끼어들었다. 흡사 이 동네는 김해 김씨, 저 동네는 밀양 박씨, 아랫마을은 동래 정씨, 윗마을은 함안 조씨 등으로 집성촌을 이룬 듯했다. 이들은 종족끼리 한 덩어리를 이루어 다른 종족을 향해 세력을 떨치려 들었다. 녀석들의 아귀다툼이 배턴 터치를 하는 가을로 접어들자 금세 쑥부쟁이며 들국화 천지가 되었다. 잎과 줄기는 밖으로, 눈은 외부로 열어서 제 속을 채우고 안을 점검하면서 꽃 등불을 밝힌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꽃송이들이 펼치는 다툼,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에 못지않다.

그리곤 서서히 막이 내렸다. 북풍한설이 휘몰아치자 어느 것 하나 고개 쳐들고 눈 부라림 하지



않았다. 일년초는 그렇게 씨앗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다년초는 내년 봄을 기약하며 겨울잠에 들었다. 잡풀은 힘센 놈, 잘난 놈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자기 몸을 흙에 바쳤다. 그들에겐 어제가 오늘 되게 하고, 오늘이 내일 되게 하는 원형질이 담겨있었다. 초본식물 하나하나를 짓뭉개는 게 계절의 질서라면, 개체 하나하나의 완전 해방은 그 본체였다.몇 해가 지나자 나무들이 점령군이 되었다. 잡풀이 돋아나는 틈새를 비집고 소나무와 아까시나무를 비롯해 오리나무며 참나무며 버드나무 들이 이젠 내 차례라며 어깨에 힘을 주며 세를 뽐내었다. 나무는 억센 팔뚝으로 공간을 휘어잡았다. 바람 부는 날은 현악기 연주에 동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큰 놈은 큰 놈대로 굵고 긴 가지로, 작은놈은 작은놈대로 가늘고 짧은 가지를 흔들며 연주를 했다. 녀석들은 몸 높이만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 서로서로 치고 막는 모순, 그 가운데 치솟는 상승이 뻗어 내리는 하강을 품어드리는 역리(易理).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짝이 되는 조화. 이러한 자연의 시계(時計)가 풀과 나무의 몸집을 불리고 높이를 더한다. '짧디짧은 두레박줄로 어찌 깊은 샘물을 마실 수 있으랴.' 초목은 자신의 행(行)이 삶의 순(順)이라며 몸말로 그려낸다.

초목의 뿌리 내림은 땅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 **땅에게 허가 받은 초목의 뿌리 내림**
> **개체마다 토양이 바라는 특성 갖춰**
> **흙도 뿌리를 받아들이면서 명한다**
> **뭇 생명체의 생명 보존 근원 되라고**

게다. 개체마다 토양이 바라는 특성을 갖춰 자격이 입증되었다. 흙도 너그럽게 식물의 뿌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명한다. 뭇 생명체의 명줄 보존에 근원이 되라고.

우리는 본다.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먹이를 낚아채면 뼈를 남기고 먹는다. 악어와 뱀 등 파충류는 뼈는 물론 털도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리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며, 엽록체에서 햇빛을 빨아들인다. 이러한 광합성작용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 자급자족한다. 먹는 것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따진다면 식물이 단연 경제적인 삶이다.초목 하나하나는 주변을 거부하면서도 주위를 포용한다. 타의 먹이와 산소 공급, 이 두 가지 사명을 한꺼번에 실행한다.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어 서로 경계를 넘고 넘다 생을 마감하는 인간과는 달리,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正體)를 지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정된 범위를 넘보지 않는다. 그게 풀이며 나무다.초목의 자자손손 이음줄에 마음이 뒤엉킨다. 오직 생식에 목표를 둔 녀석들. 종족마다 제반 환경을 따지면서 뿌리를 내린다. 대다수 식물은 양질의 토양을 찾지만, 갈대나 부들은 개울가나 웅덩이에서, 부처손이나 와송은 메마른 바위틈과 기와지붕에서, 민들레나 질경이는 다른 종과의 경쟁을 피해 길가나 보도블록 틈새에서 꽃피워 씨앗을 맺는다. 생명체의 생식 활동은 신의 영역인지라 그 어떤 훼방꾼이 나타나도 기꺼이 이겨낸다.

초목의 생존 경쟁에서 녀석들의 본능을 읽는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종마다 특질을 발휘하면서 잉태를 위해 혼을 불태운다. 개밀과 뚝새풀 같은 종족은 인고의 시간을 보낸 끝에 영근 씨앗을 봄바람에 날리고, 매실나무와 살구나무 등은 꽃샘추위에 꽃피워 오뉴월 햇살 받으며 과육 속의 씨를 야물게 한다. 참나무와 밤나무 등은 삼복더위를 기꺼이 이겨내어 가을바람에 투두둑 열매를 떨구고, 도꼬마리며 귀심초 등은 메마른 몸피로 씨앗을 한가득 이고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휘청댄다. 한서(寒暑)를 이겨냄은 물론 홍수와 태풍에 휘몰리면서도 자웅(雌雄)은 합일에 열중이었다. 종족 보존, 힘의 논리를 뛰어넘어 살아있다는 존재 그 자체이다.

치고받음 속에서 종족 보존을 위한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손 번영을 따져보면 단세포 생명체는 스스로 분열하여 자손만대를 이어가고, 암수로 나뉜 동물은 어렵게 짝을 만나 새끼를 친다. 식물은 씨앗 영글기에 절차와 시간상은 물론 양적으로도 탁월하다. 모순덩어리 초목들의 경쟁과 투쟁, 대립과 반론, 생성과 소멸.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초목의 대대손손 이음줄이 크게 보이는 현시점이다. 물질적, 기술적, 구조적 발전이 오히려 인간사에 숙제 하나를 던진다. 엥겔지수가 높았던 농경시대에는 자급자족이 태반이었다. 활동폭이 좁은 덕으로 먹을거리 외엔 생계비 지출에 큰 걱정 없이 자녀를 건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지금은 지출의 명세서가 늘어나 가벼운 지갑에 마음이 허우적대는 처지이다. 이런저런 연유로 활짝 피우지 못한 꽃망울들이 앞, 뒤, 좌, 우에 즐비하다.

주변을 둘러보자니 마음이 무겁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짝을 찾지 못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요행히 반려자를 맞아 가정을 이루었어도 경제 사정에 짓눌려 배태할 생각은 엄두조차 못 낸다. 가구 평균소득에 눈높이를 같이 하자니 가장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벅차다며 자녀 두기를 아예 포기한다.

하지만 '인간은 집착을 기쁨으로 삼는다' 고 불교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는 일렀다.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집중하는 만큼의 큰 보람은 없으리라. 자녀를 두지 않으면 근심거리조차 없다고 하지만, 미래도 없고 꿈도 없다.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랴.

"여름철 첫더위에 우거진 나뭇가지가 꽃을 피우듯, 그와 같이 평안에 이르는 오묘한 이법을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이 되는 최상의 일들을 위해서, 이 훌륭한 보물들이 눈뜬 자에게 있다. 이 진리에 따르면 복되리니," (〈숫타니파타〉 김운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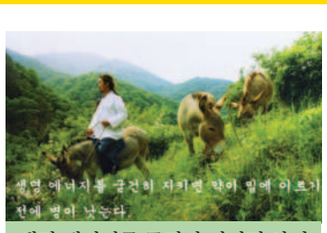
공자께서도 '천하동귀이수도(天下同歸而殊途)' 를 언급하며 천하 만물은 한 군데로 돌아가게 되어있으니, 그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시계에 따라 살아가라고 권한다. 이 진리에 따르면 복되리니.

초목은 만궁(滿宮)으로 진공묘유(眞空妙有)로 되, 여태껏 비어있는 여인의 포궁(胞宮)은 언제쯤 만궁(滿宮)이 될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심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잘못된 수행을 잘못된 줄 알라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㊸ 색음(色陰)

〈원문〉 "아난아, 마땅히 알아라. 네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이 소멸되어 그 생각이 다하면 곧 생각이 떠난 거기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아져서 동(動)·정(靜)에 달라짐이 없이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한결같거늘 마땅히 이곳에 머물러서 삼마제에 들어가면 눈 밝은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교한 성품이 미묘하고 청정하나 마음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색음(色陰)의 구우(區宇)라 하느니라. 만약에 눈이 밝아지면 시방이 훤히 열려서 어둠이 없어지나니 색음이 다한 것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은 곧 겁탁(劫濁)을 초월하리니 그 말미암은 바를 관찰하면 견고한 망상이 그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난아,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미묘하고 밝은 것을 정교하게 연구하며, 사대(四大)가 짜지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몸이 능히 장애를 벗어나리니 이는 정교한 밝음이 앞의 경계에 흘러넘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는 다만 공용으로 잠깐이와 같은 것을 얻었을 뿐 성과(聖果)를 증득한 것은 아니니라. 성과를 얻었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좋은 경계이나 성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지으면 곧 사견(邪見)이 되고 마느니라.

〈강해〉 삼마지를 닦다가 모든 생각이 소멸되어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훤하게 밝아져, 생각이 없어졌으므로, 움직이고 고요함이 동시에 없어져 기억되는 일도 잊어버리는 일도 없이 공적(空寂)한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삼마제에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를 비유하여 말하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고요히 있는 것과 같아서 정신은 초롱초롱한데 바깥 경계는 빛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색음이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아직 빛이 밖으로 비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가 마음의 빛(心光)이 생겨 밖으로 나오면 눈이 더욱 밝아져 시방이 훤히 열리어 어둠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때는 이미 색음이 없어진 경계이다. 구우(區宇)란 일정한 범위 구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색음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색음이 다해 없어지면 겁탁(劫濁)을 초월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겁탁이 견고한 망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색온의 견고함이 없어지면 겁탁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오탁악세(五濁惡世)라 하여 중생 세계에 다섯 가지 나쁜 점을 들어 말하는데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이다. 〈법화경〉에도 오탁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능엄경〉에서는 〈법화경〉과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오탁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 볼 때, 겁탁은 시대적인 혼탁을 말하는 것으로 기근(飢饉)이나 질병(疾病), 전쟁(戰爭)이 발생하여 시대가 흐려져서 입는 재액(災厄)을 말하고, 견탁은 말법시대에 사법(邪法)과 사견(邪見)이 난무하여 사상의 혼탁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 번뇌탁은 사람의 마음이 번뇌에 의해 흐려진 것을 말하고, 중생탁은 인간의 행위가 악행이 많아져 인륜 도덕이 무너지며 인과법을 무시하고 악업을 짓고도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명탁은 수명의 피해를 자주 입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액운(厄運)을 말한다.

'사대(四大)가 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체의 상태로 있던 몸이 색음이 다하면 색을 이루던 사대가 유리(遊離)되어 기체화(氣體化) 되는 것을 말한다. 매우 신비한 말이 위의 본문 문장 다음에 나오는데 색음이 녹아질 때 몸 안에 있는 회충 따위를 몸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하였다.

오음(五陰) 가운데 색음을 음마(陰魔)라 한다.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 모두 음(陰)이지만 수음과 상음은 마가 외부에서 온다 하여 외마(外魔)라 하고 행음은 심마(心魔) 식음은 견마(見魔)라 부르기도 한다. 오음에 모두 마(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마제를 닦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마(魔)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수행을 잘못된 줄 모르고 옳은 수행이라 여기고 있는 병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신비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것에 도취되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뜻에서 마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32진로수행, 첫 번째 운용 경로는…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㊸ 32진로수행

열한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회음 기점이다. 항문과 음낭 뒤 모서리를 연결하는 선의 중점에 위치한다. 임맥과 독맥, 충맥이 교차하는 자리이다. 임맥의 종지이고 독맥의 시작점이며 충맥으로는 백회 기점과 연결되어 있다.

전립선의 치료점이고 성선신경총을 활성화시켜주는 자리이다. 남성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고 뇌혈관의 수축과 팽창에 관여한다. 엄지발가락 경로와 검지 경로로 연결되어 있고 백회 아래쪽에서 피질 경로와 연결되어 있다. 백회에서 표출된 자기장이 다시 유입되는 자리이다. 눈 밑 쪽 상악골과 공명을 이루고 가로막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수축으로 기능이 저하된다. 엄지로 3지와 4지를 억제시킨 상태에서 중간기둥 'ㅇ' 발성으로 중황과 백회를 함께 울려준다. 그런 다음 발성의 진동을 중극, 황정을 거쳐서 회음까지 끌고 내려온다.

백회와 회음이 함께 자극되면서 회음 자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면 냉기가 없어질 때까지 발성을 반복한다. 회음 기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열두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황중 기점이다. 황정과 중극 사이 척수 10번 분절 배 쪽에 세워진다.

한물건이 형성된 이후에 중극과 황정 사이에서 내호흡을 하면서 세워지기도 하고 비상비비상처해탈 과정에서 흉수 10번 막관을 하면서 세워지기도 한다. 수인법은 3지, 4지 억제이다. 황중이 세워지면 열두 개의 단(壇)이 하나로 통합된다. 황중기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서른두 개의 삼각형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삼십이진로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 세포를 제도하는 중추점이고 양신이 포태되는 자리이다. 황중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열한 개의 단(壇)을 운용하면서 32진로수행을 한다.

32진로수행은 세 개의 단(壇)이 세워진 이후부터 행해진다. 선정의 성취가 먼저 갖추어진 뒤에 할 수도 있고 32진로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성취할 수도 있다. 32진로 수행의 첫 번째 운용 경로는 중심, 영대, 명문이다. 이 라인을 가동하면서 후천기를 집약시키고 명문의 쿤달리니를 일깨운다. 척추 순화의 시작이다.

옴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 단에 후천기를 집약시킨다. 그런 다음 발성의 진동으로 명문과 영대를 함께 울려준다. 영대가 자극되면 교감신경 에너지가 촉발되고 명문이 자극되면 쿤달리니 에너지가 깨어난다. 그렇게 되면 오장의 선천기도 함께 표출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장의 선천기가 깊은 숙면 상태에서 표출된다. 하루에 5분 정도 표출되는데 이때 충맥을 통해 명문으로 이동한다. 오장의 선천기가 명문으로 이동하면 쿤달리니 에너지와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면서 쿤달리니가 충전된다. 쿤달리니가 충전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소모되면 다시 잠이 온다.

5장의 선천기는 음식을 통해 보강된다. 중심과 영대, 명문 기점을 연결해서 운용하게 되면 오장과 명문 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교류가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생체기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70대 노인이 30대 청년처럼 바뀌게 된다. 오장과 명문, 중심은 경락과 혈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장과 명문은 충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중심과 오장은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중심과 명문, 영대가 서로 연결되면 7식이 발현된다. 그 과정에서 말하고 보는 기능이 원만해진다. 32상 80종호 중에 입과 눈의 형상은 첫 번째 삼각형을 운용하면서 갖추어진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㊸ 오온

불덩어리를 던져버려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수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떠나 수행승이 됩니다." 아마 초기경전인 〈니까야〉를 읽어 보신 분이라면 왕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진리를 참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할 것이다. "번잡한 곳에서 번잡하지 않은 곳으로 떠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번잡한 일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이다. 집이라는 대상과 번잡하다는 행위에 대해 처음에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을 하다보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집이라는 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사는 집일 수도 있고, 친지와 가족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귀결하는 곳은 오온이 집이고, 오온이 '나'라는 생각의 집이고, 오온이 나의 자아라는 집착의 집일 것이다. 번잡한 일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일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대소사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은 세상의 일에 내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번잡함일 것이다. 이 두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행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개체와 개체 간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생로병사로 일어나는 괴로움에 대해 참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괴로움에 대한 탐구는 옳고 그름으로 간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괴로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개체의 문제에 빠져 참구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개체의 사소한 문제에 빠져 몸이 소멸할 때까지 진정한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비슷하다. 아마도 진정으로 바른 견해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참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견해로서 사유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세상의 일과 개체간의 갈등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버리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나의 자아라고 하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바른 견해를 갖는 일이다. 이러한 바른 견해가 생겨날 때, 바른 사유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급물살을 만난 배가 빠르게 바다로 나아가듯, 사유에 불필요한 요건들이 사라지고 해야 할 사유에 집중하게 된다. 만약 몸과 마음이 내가 될 수 없다는 바른 사유가 되어 있다면 조사의 언어에 계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그는 불덩어리를 던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오온이 불덩어리라는 사유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오온에 대한 바른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열반 후 1차 결집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가섭존자는 그러한 아난존자의 안타까움을 보고 아난존자에게 마지막 일갈을 해줬다. "문 앞에 있는 찰간을 꺾어버려라(倒却門前刹竿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은 '나'라고 하면서 살아온 오온이다. 그 오온의 벽을 부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개념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개념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려주어도 또 다른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버린다. 해방이 그에게는 더 복잡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불덩이를 들고 던졌을 때,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덩어리를 들고 고민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모른다. 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것이 지혜이고 번민에서 해방된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0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안양
- 2층포교당 : 60평
- 법당(삼존불), 공양간, 종무소, 룸
- 시설비무료인계, 시내, 주차가,
- 보증금 : 1천만원
- 임료:60만원
- 경기분당포교원
- 8층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ev.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 사찰, 굿당 등 활용 가능 문의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가액 : 4억 5천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42평
- 한옥 2채 (위채:법당, 아래채), 큰 창고 1동
- 교통편 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 가능)

010-9338-1755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8
- 4층 건물 (1층 33평 법당, 2층 24평 종교시설, 3층 20평 주택, 4층 15평 주택)
- CCTV 4대 설치
- 가액 : 4억원

010-9881-736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 황령산
- 가격
  전세 : 일백만원
  월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백만원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가능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104-13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미륵입상
- 가격 : 2억 8천만원
  집기류는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 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연로하셔서 인연자를 기다립니다.

*굿당으로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010-9355-177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1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0호 | 18 | 전면광고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T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⑳ 무상(無常)



전법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

봄이 얼마 전인가 싶었는데 여름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또 겨울이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시간을 흐르고 세월은 쌓여간다.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청년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이를 먹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렇다. 만물은 항상 변하며 영원히 실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나 명예에 집착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리의 귀중한 삶을 잘못된 생각으로 낭비하는 일 없이 정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에도 새로운 사물이 생기고, 또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변화무쌍한 삶속에 부처님법에 귀의하고 부처님법 전하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④ '담아내기'와 '버텨주기'

청소년 마음은 '사나운 코끼리'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 1823~1860)는 철도 선로 쇳덩이가 얼굴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다. 끔찍한 이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뇌과학과 정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1848년 9월 13일, 게이지는 철도 확장 작업을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땅에 묻고 있었고, 갑자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며 땅에 묻어둔 선로 쇳덩이가 날아가 왼쪽 뺨을 관통했다. 다행히 그리고 놀랍게도 게이지는 죽지 않았다. 뇌 좌반구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게이지는 선로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목격자들은 게이지의 의식이 또렷했다고 증언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게이지는 두 달 뒤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게이지는 성격의 변화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평소 온화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이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잔인한 성격으로 변해있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게이지의 사례를 배운다. 이유는 뇌의 전두엽이 성격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1994년 신경과학자의 연구로 이 사례는 사실로 입증됐다.

뇌의 전전두엽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자로 불리는 중요 기관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이 유아기 다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라고 한다. 뇌의 발달은 아동 초기 이후 11세와 12세 사이에 큰 폭으로 이뤄진다. 뇌세포 수상돌기가 전전두엽 피질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성격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피니어스 게이지 증후군'을 앓는 것처럼 보여 난폭하고 충동적이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단지 뇌 발달의 측면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의 발달과정을 보면 충동 통제가 다른 시기보다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뇌 발달을 포함해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의존 욕구가 공존해 혼란을 겪는다.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또래 관계는 가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즉, 부모의 가치관보다는 친구의 생각과 의견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가장 중요한 안식처로 생각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래 속에서 다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시기여서 왕따는 죽음과도 같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폭력 사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다수다.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그들을 상담하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바닥만 보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노랗게 탈색을 하고 입술을 빨갛게 화장한 15살 채린(가명)이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착실하게 학교도 잘 다녔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다.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욕설을 내뱉고 학교에는 지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결석도 잦아졌으며 출석 일수가 부족해져 면담이 이어졌다.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있었고 짧은 치마로 맞춰 입은 교복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있었다.

청소년 상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담아내기(Containing)'와 '버텨주기(Holding)'다.

'담아내기'는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 비온(Bion)이 개발한 개념이다.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시기 중 하나인 유아는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압도된다. 유아는 울음과 표정 그리고 옹알거림 등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주의 깊고 따뜻한 부모는 관심 어린 경청과 관찰로 유아가 전하는 감정을 받아준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되돌려주며 유아는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버텨주기'는 위니콧(Winnicott)이 강조한 개념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아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경험할 때까지 좋은 엄마는 함께 버텨준다.

유아 때의 이런 따뜻한 경험이 평생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재차 강조된다. 이것은 2차 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아처럼 사회 속으로 갓 태어난 심리적 아기이며 마음은 혼란에 압도되어 있다. 이렇게 혼란의 시기지만 그들의 신체는 커졌기에 책임을 요구 받고 어른다움을 강요받는다. 청소년이 마주하는 이런 변화는 그들 스스로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들다. 배가 고파 우는 유아의 울음소리에 피곤한 몸을 깨워 젖을 먹였던 정성처럼, 청소년들의 정서적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담아주고 버텨줘야 한다.

의지와 달리 충동 통제가 힘든 청소년기
난폭한 코끼리 잠재운 붓다 마음 새겨야

불교에서는 날뛰는 마음을 사나운 코끼리에 비유한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서는 사람을 죽인 코끼리 날라기리가 나온다. 붓다를 죽이려는 데바닷타가 사육사에게 "사문 고타마가 이 길로 올 것이니, 그때 이 날라기리 코끼리를 풀어서 길로 뛰어가게 하시오"라고 했고 사육사는 이 말에 따라 코끼리를 탁발 중인 붓다에게 보낸다.

멀리서 돌진해 오는 코끼리를 보고 비구들은 당황해 자리를 피하기를 간청했지만 고타마 붓다는 그대로 코끼리를 마주했다. 그때 부처님은 "붓다의 목숨을 폭력으로 뺏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확신과 자비의 기운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날라기리를 멀리 던져버리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붓다는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코끼리를 감쌌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사람을 죽인 코끼리처럼 날뛰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난폭하게 자신을 몰아치고 분노와 증오로 혼란을 겪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도 알 길이 없다. 상담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실제로 "모르겠다"이다. 물론 대답하기 싫어서일 때도 있지만 그들의 혼란을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말이다.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기의 울음에 답을 하는 어머니처럼 정서를 담아내고 함께 혼란의 시기를 버텨내는 자비로 감싸 안는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일일시호일

헛디딘 발끝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진 고향 생각

추석날 가파른 계단서 실족…두개골 · 허리 골절에 중환자실
밀린 병원비 3000만원…"수술 불가피" 권고에도 엄두 못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㉓ 〈아처(The Archer)〉와 명상



▶한줄 요약
활시위가 길다 하더라도 화살을 거는 부분은 작은 한 점이듯,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챙기는 것은 현재 한 대상일 뿐이다.

다른 듯 같은 활쏘기와 명상

파울로 코엘료의 베스트셀러 소설 〈아처(The Archer)〉는 짧지만 강렬한 교훈이 있는 글이다. 〈아처〉는 저자가 궁도를 배우며 익힌 경험을 세분화해서 상술한 글이다. 화살을 쏜다는 것은 단순히 텅 빈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활을 통해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라고 한다. 표적에 다다르느냐 다다르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활, 화살, 표적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활쏘기는 시위를 놓는 순간 극도의 긴장에서 완전한 이완으로 전환된다.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우아한 자세와 더불어 고도로 정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은 동료, 활, 화살, 표적, 자세, 화살을 잡는 법, 활을 잡는 법, 활시위를 당기는 법, 표적을 보는 법, 발시의 순간, 반복, 날아가는 화살을 주시하는 법 그리고 활과 화살과 표적이 없는 궁사가 되기까지 등 13개의 주제로 전개된다. 각 주제도 흥미롭지만 이 주제들이 인생의 기본을 배우는 하나의 진리로 연결된다. 마치 구도자가 깨달음의 길을 가듯, 스승이 제자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을 가르치는 것처럼 매우 성찰적이며 명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마지막 활과 화살과 표적이 없는 궁사가 된다는 것은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말과 상응하는 것 같았다. 어떤 분야든 궁극의 끝은 서로 통한다. 궁도와 명상도 그런듯해서 필자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한 마을에서 "진을 찾아왔다"는 이방인의 말로 시작된다. 진은 과거 활을 쏘던 사람이었지만 목공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방인은 진이 보는 앞에서 40미터 거리에 있는 체리 열매를 쏴 관통시킨다. 진은 이방인에게 화살을 하나 빌린 다음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랐다. 한 시간 남짓 걸어 그들은 절벽 사이로 커다란 강이 세차게 흐르는 낭떠러지 앞에 도착했다. 진은 심하게 낡아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로 걸어가 20미터 떨어진 복숭아를 맞췄다. 이방인도 진을 따라 닳아빠진 다리 가운데로 갔다가 발밑의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방인은 이전과 똑같은 자세와 동작으로 복숭아나무를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멀리 빗나갔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낯빛으로 돌아온 이방인에게 진은 말한다.

"당신은 활쏘기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지 못했군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잘 쏘지만 곤란한 상황에서는 표적을 맞추지 못합니다. 궁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련을 시작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화살을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설에서 이방인은 깨달음 또는 명상을 배우려는 수행자, 진은 명상을 지도하는 눈 밝은 스승으로 비유될 수 있다. 진은 이미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을 제자가 최선을 다해 스스로 발견해나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다. 궁도를 가르치는 건 한 시간 안에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터득할 때까지 연습하는 건 쉽지 않다.



파울로 코엘료 소설 속 메시지
"행동 없는 기도는 활 없는 화살"
'지혜 없는 자비' 가르침과 닮아
온전히 깨어있으려는 노력도 유사

명상도 동일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알아차림 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매순간 하다 보면 어느 때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활시위가 길다 하더라도 화살을 거는 부분은 작은 한 점이듯,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챙기는 것은 현재 한 대상일 뿐이다. 소설 〈아처〉에 나온 글 중에서 명상적 맥락으로 살펴본 네 가지 관점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책을 열면 엘라 휠러 윌콕스의 어록인 "행동 없는 기도는 활 없는 화살과 같다.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로 시작한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필자는 "자비 없는 지혜는 활 없는 화살과 같고, 지혜 없는 자비는 화살 없는 활과 같다"고 메모를 했다. 활과 화살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아무리 날카롭고 잘 만들어진 화살이 많더라도 활이 없다면 어떨까?

명상도 마찬가지다. 깊은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명상에서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자비를 근거로 더욱 더 청명하게 드러나며 자비는 지혜를 바탕으로 따스하고 훈훈하게 작용한다. 지혜와 자비가 균등하게 이뤄되면 결국 무상정각을 성취하게 되어 대자대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하트스마일러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트스마일명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자비행법을 기반으로 한 하트스마일명상 프로그램도 우리가 본래 붓다와 같이 지혜로 충만하고 자비로 무궁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비행법을 실천하면 자비와 지혜가 상하 혹은 선후 차제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살'에 관한 이야기다. 파울로 코엘류는 '화살은 의도'라고 표현했다. 화살은 활의 힘을 표적의 정중앙에 전달한다. 의도는 명료하고 올곧고 균형 잡혀있어야 한다. 화살 하나하나가 마음에 기억을 남기고, 그 기억들이 합쳐지면서 점점 더 활을 잘 쏠 수 있게 된다. 명상도 매 순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알아차림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주의가 아니라 대상을 의도적이면서도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동적 주의력이 활성화되면 온전함의 자리에 깨어있게 된다.

하지만 명상 초보자들이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상 온화한 주의력은 명상 과정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친철함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마일, 미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눈을 살며시 감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려 미소 지으면서 눈꼬리와 입꼬리가 연결된다고 상상을 한다. 얼굴 가득 둥근 햇님 같은 환한 미소를 상상하면서 따스하고 훈훈한 느낌이 온몸에 스며들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온화한 주의력이다. 미소와 함께하는 온화한 주의력은 몸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집중하려고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미소의 느낌과 호흡하면서 명상을 즐기는 것이다. 집중하다가 딴 생각에 빠져서 방황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면서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화살의 의도와 같이 온화한 주의력은 명상의 핵심 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궁수는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그날 아침의 활쏘기 결과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수많은 날이 남아 있고, 각각의 화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이라고 표현했다. 잘하지 못한 날들을 교훈삼아 흔들린 이유를 알아내고, 잘한 날들을 거울삼아 내면의 평온으로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든 정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 궁도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상도 그렇다. 어떤 날은 수행이 잘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잘 안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명상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명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졸음이 오면 몸이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졸음이 오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면 충분히 피로를 푼 다음에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명상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태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졸음이 온다면 명상하는 의도를 단호히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신심과 분심을 내어서 조금은 치열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명상하는 동안 마음의 존재 모드(being mode)와 행위 모드(doing mode)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활과 화살과 표적이 없는 궁사로서 궁도의 규칙을 모두 잊고 전적으로 직관에 따라 행동할 때 궁사는 진정한 깨우침을 얻는다고 했다. 하지만 규칙을 잊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 규칙을 인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단계에 이르면 배움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길에 이르게 한 수단보다는 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으로 비유하자면 온전함에 깨어있는 상태가 아닐까 한다. 온전함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현상에 대한 비판단적 알아차림이 강화되면서 집착심이나 성냄이 없어지면서 자애와 연민심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 고통 받는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연민의 마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 즉 사무량심이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한다.

진은 이방인과의 대결을 통해 그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은 궁도를 가르쳐달라 청하며, 진에게 최고의 자리에서 활을 내려놓고 목수가 된 이유를 묻는다. 진은 소년의 인생에 빛이 되어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감명 깊었더라도 스스로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라고 당부한다.

이 말은 앙굿따라 니까야의 깔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라.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자(智者)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많이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깨닫는 것이다. 필자에게 소설 〈아처〉는 부처님 말씀처럼 다가왔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60 호 현대불교
2023년 11월 22일(음 10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모든것을집어삼키는지극한믿음과물러서지 않는패기가필요합니다

이날까지 여러분 앞에 두서없으나마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일체 생활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제가 "놔라, 놔라! 놓으시오, 놓으시오, 놓으십시오! 모든 건 주인공에다 일임해서 놓으시고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수억겁 전부터 이끌어서 몸을 바꿔 가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이끌어 온 그 주인공, 근본자리를 왜 못 믿습니까?" 하고 여러분 앞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자신이 태초며 화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타의에서 구하거나 타의를 믿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인간다웁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다웁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 모든 몸의 업식으로 뭉쳐진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일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서 수련을 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에 병을 가져오거나 가난을 가져오거나 또는 어떠한 우환을 가져오거나 괴로움을 가져오거나, 천차만별로 가져오는 그것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온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일임하고 놓을 수 있다면 바로 즉시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엎어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병난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60%, 70%가 부족되는 것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당해 100%로 하려면 바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업식으로 뭉쳐진 그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여러분 앞에 내가 기도를 드려 준다거니 기도를 하라거니 이렇게 해야 된다거니 저렇게 해야 된다거니 이런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그대로 병을 가져와도 자기 자신에서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 주인공에서밖에는 낫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적인 확신을 자기한테 안겨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짐으로써 모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자신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발견할 수 있고 감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의합하게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환과 우환, 가난, 병고, 유전 이러한 인과로써 오는 그 업보, 그런 것을 다 면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생기게 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던 말을 하는 것은 이왕 말을 하려면 이 말을 안 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은 일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 놓고 간다. 물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 전서부터 진화를 시켜서 사람까지 이끌어온 장본인의 근본이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 못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고 간다. 놓고 가는 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편해지고 모든 것이 심성 과학적으로, 생활이 심성 과학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

그런다면 이차적으로, 이차적이라는 말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기를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이차적으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놓을 때, 전자의 업식으로 뭉쳐져서 용도껏 자기가 살아나온 대로 컴퓨터에 수록이 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걸 없애는 작업을 한 겁니다. 첫째 그걸 없애게 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발견하게 돼 가지고 뭐를 하는가? 이 몸에 들은 내 중생들하고 둘로 보지 않는 거, 부처와 나와도 둘로 보지 않는 거, 일체 중생과 나와도 둘로 보지 않는 그걸 습득한다. 둘로 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父)와 자(子)가, 자기와 자기가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스스로서 움죽거렸다 하면 자가 되고 가만 있으면 부가 되니까 둘로 보지 않으나 마나 둘이 아닙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온 도량 한울에서, 즉 하나로서의 이 마음을 내게 하는 겁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공,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바로 불성의 능력이라고 하고, 마음으로서의 육체를 움죽거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둘로 보지 않을 것!

다음에는 모든 걸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이 모두가 수록된 게 하나하나 풀려서 나올 때에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서, 처음에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놓으면서 실험을 하면서 체험한다면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하나 업보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화해서 보살로 이어진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살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음과 양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음과 양을 통해서 돼지 소굴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과에 의해서 뭉쳐진 그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파헤치고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나에게, 모두 각자.

그러니 나를 발견해서 그때서부터 '공부'라고 이름하죠, 그것도. 공부를 하는 수행의 여건을 아주 치밀하고 무겁게 하면서, 가볍게 바깥에는 끄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있는 거든지 마음이 없는 거든지, 무(無)의 귀신이든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 반면에 모든 것은 이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너 나가 없이 그렇게 스스로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은 나를 발견해 가지고서도 공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 가지고 한창 예민해졌을 그 무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게 보이면 '아이구, 부처님이 보였다.'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마구니가 나타났다.' 하고 버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또 어렵지요.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극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당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발견해 가지고는, 이런 예가 있었죠. 제가 어느 길을 가는데 아주 그윽한 산이 닥쳤습니다. 그때가 몹시 늦은 가을이라 추웠습니다. 밤은 깊어 가는데 길이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그 깊은 골짜기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 스승이 말입니다. 그때에 의정을 내는 겁니다. '왜 길을 두고 길이 아닌 길을 길이라고 하나?' 하고 의정을 내는 거지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고 의정을 내는 거는 무모합니다. 알고 의정을 내도 아니 되고 모르고 의정을 내도 아니 되고! 그건 왜냐? 나를 이끌어 주는 스승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의정을 낼 때 크게 의정을 내게 되는 거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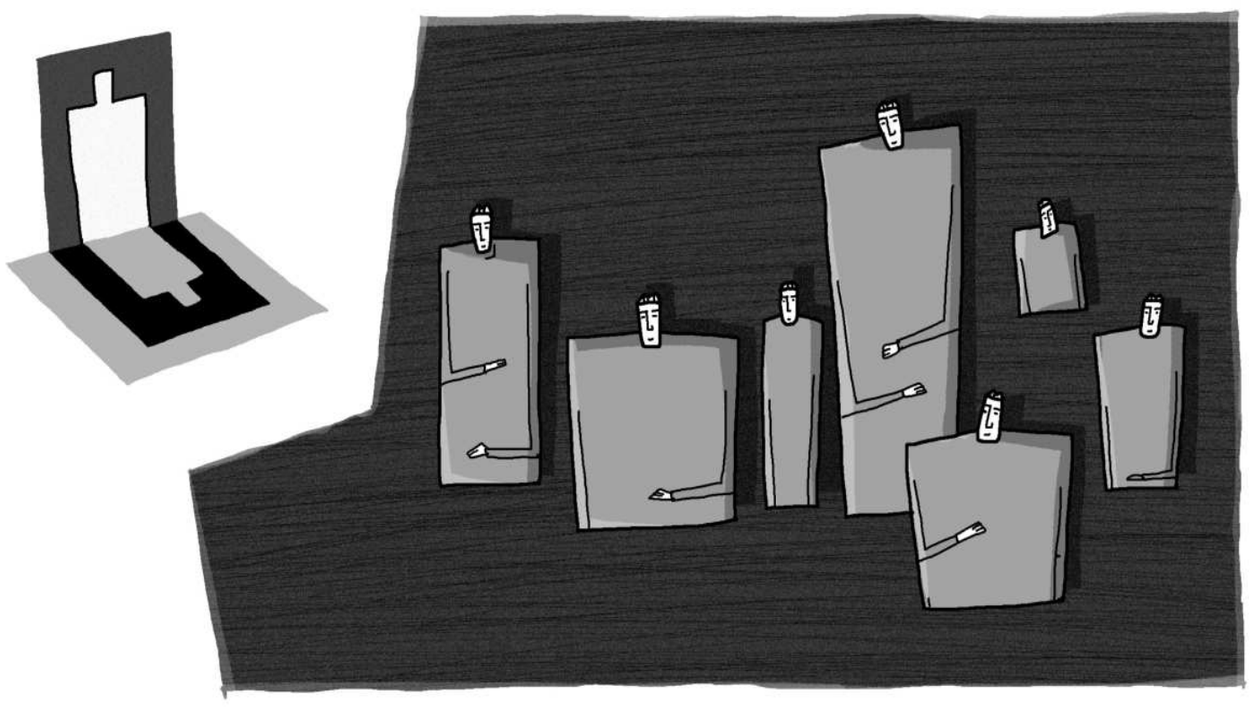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주처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공부하기 힘들다

☞ 21면에서 계속

지 여러분이 나를 발견치도 못하면서, 번연히 이 몸이 불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놈이 뭣고' 하고 있다면 빈 맷돌이 그냥 덮어놓고 돌아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딱 세워 고 일을 하지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계획도 없이 일하시게 돼 있습니까? 시장에를 가도 무슨 계획이 있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을 봐 오죠? 계획 없이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떠돌아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의정을 내도 크게 내는 것은, 바로 나를 발견한 뒤로부터 의정이 크게 나온다 이 소립니다. 의정이 나도 그것을 해결 못 하면 이슬을 맞아 가면서도 며칠을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 못 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고, 내가 지내 보니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또 생활 안 하면서도, 사찰의 운영도 살림입니다. 우리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도 살림이고요. 몸뚱이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으니 그것도 살림입니다. 그러니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다. 일체 환상의 꿈이든지 생시든지, 환상에 부처가 나오든지 귀신이 나오든지 어떠한 것에 속지 않는다. 그것이 항복을 받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둘로 보지 않는다. 모든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수련을 하면서 다 체험을 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수없이 나오는 대로, 컴퓨터에 수록이 된 것을 다 무심으로 돌려서 이것이 화해지면 모든 중생들이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 내 몸부터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하고, 내 몸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중생들부터 제도한다. 내 집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바로 그때서는 삼십이상의 그 몸이 금강신으로서 구족해진다. 이것도 이름입니다.

요 말 하기 전에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이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한 그것도 이름이요, 아라한이니 아나함이니 하는 것도 이름입니다. 구족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요, 삼십이상도 이름이요, 그런 진리에 속한 그 광대무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를 넘어서서 자기가 완성됐을 때, 자기 몸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바깥의 경계와 내 경계를 또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수련을 쌓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그때는, 즉 나투는 방법이라고 보죠. 네가 못 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일, 또 네가 정히 한다면 그것을 빼서 나한테다가 요리를 한다든가,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줘서 요리를 한다든가 체험한다. 이러한 진리에 속한 문제는 자기가 실험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이런 말을 못 한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건 여러분이 깨쳐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주장자를 너를 줄 수 있고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뺏는 게 아니라 그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천백억화신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으로 화한다는 거는, 원하는 대로, 용도대로 이 모습도 바꿔질 수 있고, 일하는 것도 바꿔질 수 있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 놓기를,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을 찾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신이니 용신이니 조왕이니 산신이니 신장이니 약사보살이니 하고 천차만별로 이름을 지어 놓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천차만별로 돼 있고요. 털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눈구멍을 통해서 용도대로 응해 주시니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투는 데도 고정되지 않다고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고정되게 살지 않으니 공한 것이다. 그 나툼도 고정된 게 없어서 내일은 어떻고 모레는 어떻고 후년엔 어떻다는 예언이 하나도 없고, 즉석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 괴로움이 없든 선이든 악이든, 그때그때 그대로 화해 나툰다 이 겁니다.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살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보살이거든. 생각을 내지 않은 생각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지 내가 생각을 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함이 없이 들이고 낸다면, 들이고 낸다 하는 그 이름조차도 걸리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말로는 욕심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벌써 하려는 욕심, 가지려는 욕심이 많아요. 또 보는 것도 좋은 걸로 보이고 언짢은 걸로 보이고, 나쁜 놈으로 보이고 좋은 놈으로 보이고 이러죠. 그러나 나쁜 놈도 항상 나쁜 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놈도 항상 좋은 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높은 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낮으면 낮은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물정이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항상 한 찰나의 살림살이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끝없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뜻을 깨달은 분, 근본을 깨달은 분과 머리로 깨달은 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도리는 철학도 갖다 댈 수 없고 언어도 붙질 않는 자립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비행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이름 붙일 자리가 어디 있으며, 거기 악과 선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십이견에 도달한다면 어떠한 계급도 없는, 그러니깐 보이지 않는 중생들 보이는 중생들, 생각이 없는 중생들 생각이 있는 중생들, 일체 무 유를 한데 합쳐서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만법에 나투시는 그런 분들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일컫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일컫는다.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게 있다면 그 이름이 붙질 않습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부처가 막상 있다면, 보살이 있다면 보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됐다면 하시라도 나한테 질문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지혜를 넓혀서 스스로서 지견이 넓어지고 한눈으로 보게 됐다면 말입니다. 내가 항상 지금 용어로 말씀드리죠. 한눈, 심안의 눈으로서 볼 때나 육안으로 볼 때나 둘이 아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라도 거죽만 보시지 속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건 육안이죠. 동시에 본다면 아마도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심안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심안과 육안이 둘이 아닌 까닭에 심안이라고 그냥 이름했을 뿐이다. 이름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천체무전통신기는 어디에서 무엇을 듣는가? 듣고 보아야 무엇을 하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뭐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주처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공부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인공' 이라는 이름을, 여러분한텐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똑 적합합니다. 왜? 삼위일체가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됨이 없이 공했으니까. 왜 별다르게 이런 이름을 지어 놨느냐 하지만 지어 놓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면 바깥의 부처님들은 어떡하느냐 그러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법당에 오면 부처님은 거기 계시고, 법신도 화신도 보신도 거기 다 계시다. 법당에 와서 있으면 그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요, 그러니 항상 편안한 마음, 끄달리지 않는 마음, 무거운 마음, 믿음직한 마음이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거죠. 변소에 가도 여러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변소에 계시죠. 똥 누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따름이지 진리로 봐서는 변소나 안방이나 주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다면 아예 대천(大千)으로, 즉 우주,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일체 생물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물질이든지 우주개공을 홈빡 다 싸고 집어삼키는 그러한 도리의 여건을, 그때는 지견을 넓힌다고 합니다.

이 체가 없는 도리를 우리가 습득하고 알려면, 평상시에 몸을 조아리고 앉아서 좌선을 해라 참선을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앉으나 서나 자나, 졸리면 자고, 자는 것도 참선이니까. 그리고 이태 삼 년을 끊어져서 못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선(禪)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 생각을 했는데 삼 년 후에야 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공간이 없어. 한 찰나야. 그러니 아침에 나갈 때 생각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끊어뜨리고 저녁에 생각났다 하더라도 그건 공간이 없다 이거지. 그냥 그대로 한 찰나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말라 이거지. 몇 시간 후에 생각이 나든, 한 시간 후에 생각이 나든, 곧바로 생각이 나든 걸리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좌정되고 편안해지고 슬기롭게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좌선이라. 일을 하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좌선이야. 밥을 먹으면서도 좌선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좌선이야. 모든 게 좌선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어.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불가부득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름해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증득해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증득했다는 그 말 자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름이니라. 내가 만약에 증득했다고 생각한다면 증득한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그런다면 자기는 부처님의 그 뜻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해서 돌아가는 그 속에 부처님과 중생이 다 한꺼번에 한자리 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의정하지 말고, 모든 것에 속지 말고 놔 버리는 그런 첫째 단계를 잘 넘기시면,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발견해 가지고 수련하는 것도 잘 넘기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대도를 이루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름이지만요. 허허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대도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 때에 따라서는 돼지가 돼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벌레가 돼야 하고, 미생물이 돼야 하고, 무정물이 돼야 하고, 부처가 돼야 하고, 산신이 돼야 하고, 신장이 돼야 하고 찰나찰나 그렇게 바뀌지는데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없다! 그 이름조차도 없다. 반면에 떳떳하다. 아주 떳떳하구나!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걸 봐도 싱긋이 웃음이 나고,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봐도 바다와 같고, 바다를 봐도 물 한 방울과 같고, 우주 전체를 생각해 봐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가 하면 모래알같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뜻을 잘 파악해서 생활 속에서 참 삶의 보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 자비와 더불어, 화목과 더불어, 조화와 더불어, 내 몸의 조화 화목 또는 가정의 화목 조화 또는 사회, 국가, 세계, 우주 대천세계가 화목해서 돌아가는 그 뜻을 안다면 빛보다도 더 빠른 내 이 마음이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좌정되고 편안해지고 슬기롭게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좌선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게 좌선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8년 1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법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통계적 시간관리’ 실천한 류비셰프
일일 시간 소비를 ‘분 단위’로 기록
月, 年 단위 통계내 시간 계획 수립
일과 생활, 여기 균형 잡힌 삶 살아

쇼셜미디어 시대는 ‘주목경제 시대’
정보홍수에 ‘주목’도 자원으로 활용
우린 ‘시간 뺏기 경쟁’ 소비되는 중
내 안서 ‘시간의 주인’됨을 찾아야

인생을 배낭 메고 소풍 나온 한 철 찰나의 삶과 같다고 비유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월의 빠른 속도를 절감한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연말이 다가오니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길에 대해 다시 숙고해보게 된다.

류비셰프는 통계적 시간관리법으로 세상에 알려진 구(舊)소련의 과학자이다. 곤충분류학자인 그는 1972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0여 권의 학술서적을 출간했고, 총 1만 2500여 장의 연구논문과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와 수천 권의 소책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양의 학술적 성과물을 남기며 20세기 러시아 과학사를 이끈 인물이다. 방대한 학술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삶이 주목받게 된 것은 유품으로 남겨진 ‘시간통계 노트’ 속에서 발견된 그만의 독특한 시간관리 기록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의 시간 소비를 분 단위로 기록했고, 이를 다시 월과 연 단위로 분석하여 통계를 냈으며, 시간 통계를 새로운 계획수립에 활용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연 수개월의 출장이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엄청난 양의 업적물을 생산해 내는 중에도, 그는 매일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산책과 운동을 즐겼으며, 공연과 전시를 빠짐없이 관람할 정도로 균형 잡힌 삶의 여유를 누렸다. 그만의 시간관리법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자신의 시간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 시간을 철저하게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21세기 우리는 정보 유통과 이용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진 과잉 정보의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 기술로 인해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의 한국 유튜브 이용시간은 1044억 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시대는 주목경제(Attention economy)의 시대라고 한다. 주목경제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과부하 상황에서 주목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려는 상업적 동력이다.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용자의 관심과 주의력, 즉 할당 시간은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플랫폼 기업들은 희소자원인 이용자의 관심과 주의력을 두고 시간 뺏기 경쟁을 치열하게 펼친다. 결론적으로 소셜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추천시스템은 취향을 조직화하고 이용자의 시간 소비를 겨냥한다. 페이스북의 초대 대표인 숀 파커는 페이스북 설계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시간과 주의를 최대한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지를 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회장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시간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스냅챗, 유튜브, 수면 등이 최고의 경쟁 상대”라고 밝혀서 심지어 수면시간까지도 겨냥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이용자의 주의를 확보하려는 것을 넘어 통치하고 지배하려 드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현대인은 늘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 자동화한 알고리즘과 고도의 추천시스템으로 무장한 소셜플랫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점점 더 가중시킬 것이다. 희소 자원인 시간이 중독적 소셜미디어 과소비로 인해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하는 이유이다. 필요하다면 디지털 디톡스나 류비셰프의 시간기록 방법을 몸소 실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열쇠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社 說

대학생 전법 성패, 안정적 재원에 있다

대학생 전법의 성공을 위한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원력은 뜨거웠다. 11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상월결사가 주최한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역대급 전법기금인 총 151억3990만원의 전법기금이 모연되며 성료했다. 상월결사가 목표했던 6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모연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진각종 · 관음종 · 태고종 등 이웃종단에서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전법에는 “종단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학생 전법 기금은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고 또 완성”이라고 했던 자승 스님의 전법 원력에서 시작됐다. 이는 10년 안에 이뤄질 대학생 전법의 성패에 따라 한국불교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대학생 전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포교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교수가 그 비용을 사비로 충당해왔다. 그러다보니 스님과 교수가 떠나면 해당 대학 불교 동아리는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동아리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지원이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대학생 전법을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전법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전법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전법 원력이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취임에 부쳐

한국불교 비구니스님들의 구심체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광용 스님이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본각 스님 · 광용 스님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하는 광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 ‘참여와 도약, 미래’를 목표로 비구니 승가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화합 승가 구축 진력 △비구니스님 위한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 △ 비구니승가 역량강화 및 정체성 확립 매진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 등을 약속했다.

취임법회에 앞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 미래’의 목표를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 비구니스님 인재양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광용 스님은 “외국어, 국제 비지니스, 불교 문화콘텐츠 활용, 유튜브 활용법 등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 수요에 최적화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비구니회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구니스님은 여성 신도와 함께 한국불교를 이끈 가장 큰 축이다. 외국어, 문화콘텐츠 등의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스님은 미래 한국불교에 꼭 필요한 인재다.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원상의 특별정진상 부문 첫 수상자로 선정된 고우 스님(미국 콜롬비아대)과 수진 스님(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은 모두 비구니스님이다. 이를 봐도 현재 한국불교 비구니스님들의 수행 및 향학열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출가시키는 것은 현 비구니승가의 과제다. 이 구심점에는 전국비구니회가 있다. 미래세대 비구니스님 육성에 매진하는 전국비구니회를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즉심즉불(卽心卽佛)

설악산 소공원에 들어서자 왼쪽으로 세존봉(世尊峰)을 올려다보았다. 줄지어 늘어선 봉우리들 사이로 우뚝 솟은 세존봉이 빛나고 있었다. 눈부신 오라가 중력에 짓눌린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설악산 많은 봉우리 가운데서 유독 세존봉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해마다 가을이면 설악산을 찾아 세존봉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가 발목을 잡아 그 험한 바윗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젠 단풍이 지고 관광객이 뜸한 쓸쓸한 계절에, 그나마 먼발치에서 세존봉을 우러러볼 뿐이다.

세존봉 건너 달마봉(達磨峰)에게 합장한 후 비선대로 바삐 걸었다.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있는 금강굴(金剛窟)에 올라 세존봉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헉헉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수직으로 이어진 돌계단과 좁은 사다리를 한 시간 넘게 기어올랐다. 금강굴 오르는 것도 이렇게 힘들 줄이야. 원효 스님은 위태롭고 비좁은 이 석굴에서 어떻게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완성하셨을까. 목이 말랐지만 바위틈으로 똑똑 떨어져 겨우 한 움큼 정도 고여 있는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조심스레 몸을 돌렸다.



그림 · 최주현

천화대 능선, 화채 능선, 공룡 능선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만경대, 유선대가 한껏 멋을 부렸다.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 줄지어 늘어섰다. 봉우리 천 개가 부처님 형상으로 뻗은 천불동 계곡에서는 독경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뚝, 자운(紫雲) 위로 세존봉이 빛났다. 경탄을 자아내기보다는 신령스러운 환희에 그만 영혼이 녹아내렸다. 세존봉에서 피어오른 무지갯빛 서기가 천지에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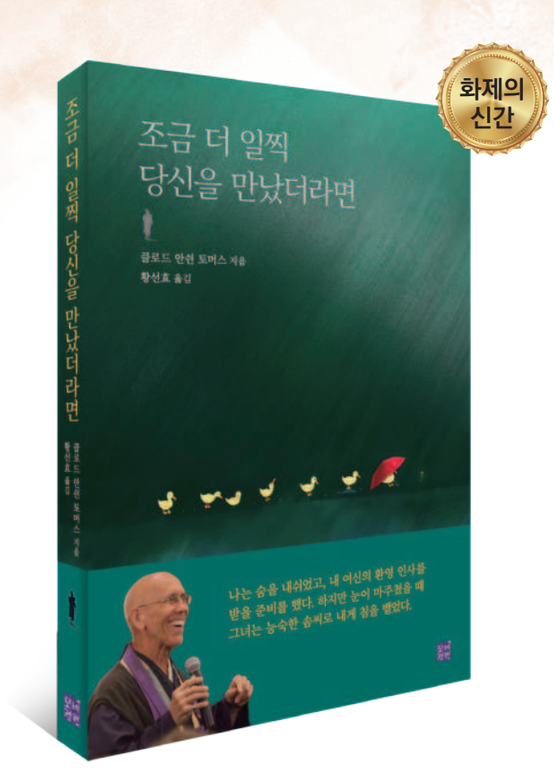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비좁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만 내려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굴 앞 칼날 같은 바위 끝으로 걸음을 옮겨 구름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암봉들을 무염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죽비 소리처럼 바람이 불었다. 불그데데한 마른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고, 내 몸이 휘청 절벽 아래로 구를 것 같았다. 할(喝), 마조 스님의 질타 소리가 바람에 실려 왔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언제까지 설악산에서, 바위 끝에서 세존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인가?”

내 집은 어디일까? 부처님을 모신 마음속이 네 집 아니냐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속삭였다. 아, 즉심즉불(卽心卽佛), 마조 선사의 법어가 가슴에 내려앉았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12월26일~1월4일 도착)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
–보드가야법회(보드가야대탑–계족산–전정각산–가야산)
–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칠엽굴–제석굴)
–파트나–델리–인천



특별한 일정

1. 달라이라마 보드가야 법회 3일간
2. 부처님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 기도
3.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지니고 들어가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는 계족산 등정
4. 부처님이 오르셨던 전정각산과 가야산 등정
5.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6. 제석천이 찾아와서 설법을 요청한 제석굴 순례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1월20일 출발~1월30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일본 교토 벚꽃여행 4일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중국 3대석굴중에 하나인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도량인 오대산 성지순례입니다.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미정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